

전후 작가 선우휘의 ‘교양소설’ 실험, 그 임계와 유산*

— 상실된 ‘젊음’을 둘러싼 냉전기의 문학적 재현

반재영**

요약

이 논문은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에 폭력적/자발적으로 젊음을 떠나보낸 남한의 지식인들이 그 상실된 젊음을 어떻게 의미화하였는지에 관한 물음에서 촉발되었다. 그리하여 이 글은 ‘젊음’을 자기 최대 화두로 삼았던 전후 작가 선우휘를 교양소설의 관점에서 재독하고 냉전의 논리와 강하게 결합된 그 교양 이념의 문제성을 살폈다. 『불꽃』(1957)과 『깃발 없는 기수』(1959)는 젊음이의 성장 편력과 방향, 실존적 결단을 대한민국의 규범적인 남성 반공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서 서사화했다. 하지만 ‘전후’의 시점에 이러한 ‘성장’은 익히 규범화된 기성의 가치에 대한 수락에 불과했기에 공허했고, 선우휘는 그 젊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고투 또한 벌여야 했다.

『불꽃』과 『깃발 없는 기수』가 공산주의자를 조롱하며 성장의 제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승패』(1958), 『열세 살 소년』(1964), 『좌절의 복사』(1965)와 같은 작품은 공산주의자 즉 ‘사상하는 인간’이 결코 그에게 인식적으로 손쉽게 처리되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사로운 나’를 넘어 신념에 목숨 바칠 수도 있는 인간은 젊음의 상징성과 성숙한 인간의 존엄성 모두를 간직했기에, 공산주의자는 외경심 섞인 언케니의 대상이었고 선우휘는 그로부터 청년과 어른 그 어느 쪽의 형상도 전

* 이 글은 2021년 10월 23일 제6회 후쿠오카대 한국학시리즈 차세대연구자 워크숍에서 「성장의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에 기초해 있다.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와타나베 나오키 선생님(무사시대), 김모란 선생님(와세다대), 민동엽 선생님(도쿄대), 황호덕 선생님(성균관대)께 감사드린다.

** 와세다대학교 문학연구과, 일본국제교류기금 펠로우

유해낼 수 없었다. 이처럼 뼈거덕거리는 교양=냉전 논리의 균열은 『물결은 메콩강까지』(1966~1967)에서 최종적으로 봉합된다. ‘젊음’을 둘러싼 10여 년에 걸친 선우휘의 작가적 실험은 실패로 끝나지만, 그 실패의 기록은 전후에 출현한 냉전적 교양 이념의 존재를 드러내 주고 있다.

주제어: 『귀환』, 「불꽃」, 『깃발 없는 기수』, 반공의 교양, 사상전, 전향, 빨치산, 포로수용소

목차

1. 문제 설정 하나: 나이 어린 두 명의 귀환포로와 냉전기 ‘교양’의 문제
2. 문제 설정 둘: 전후의 교양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선우휘 읽기
3. 사상의 초극, 「불꽃」과 『깃발 없는 기수』의 교양 이념
4. 선우휘식 교양=냉전 논리의 균열 지점들
5. 교양소설의 완성: 「좌절의 복사」와 『물결은 메콩강까지』 사이에서
6. 결어: 분단/냉전 속에 스러져 간 젊음의 초상

1. 문제 설정 하나: 나이 어린 두 명의 귀환포로와 냉전기 ‘교양’의 문제

참여논쟁이 재점화되었던 1960년대 후반기에 선우휘가 소위 문학의 정치적 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¹⁾ 정작 그 자신의 소설 쓰기가 포로파간다에서 기원했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문학가로서의 그를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만년에 선우휘는 젊은 시절 즉 해방 직후를 회고하면서 신

1) 선우휘, 「문학은 썩먹는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1967.10.19.

의주 학생사건을 비롯한 “이북의 실상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신문기자란 직업을 택했고, “신문기자로서의 메시지 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²⁾ 여기서 이북의 실상에 대한 “전달”이란 선전(propaganda)의 다른 표현인데, 이런 단편적 회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환』(1953)이라는 텍스트의 존재이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포로교환이 실시되자, 당시 육군본부 공보과장이었던 중령 선우휘는 새롭게 귀환장병 관리본부의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국군포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몇몇 포로들로부터 경험담을 들었고, 이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든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렇게 15일간의 특별 출장을 얻어 용초도에서 500여 명의 포로와 면접해 원고지 3000매 분량의 초고를 작성, 그것을 다시 절반 분량으로 정돈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 『귀환』이었다.³⁾ 이는 당국의 공식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의 단독적 기획의 소산으로 보이는데, ‘소비에트 체험자(이탈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당시 냉전 지식 생산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기도 했다.⁴⁾ “천오백 매의 원고를 정리하면서 문장 공부를 한 셈”이라고 회고되는 『귀환』은, 그에게 있어 심리전 텍스트의 생산과 소설 쓰기의 기원이 긴밀히 얽혀 있었음을 보여준다.⁵⁾

2) 선우휘·정규용, 「나의 문학, 나의 소설작법」(대담), 『현대문학』 29-9, 현대문학사, 1983.9, 392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북에서 환멸을 느끼고 월남한 선우휘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란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젊었던 그는 자신의 이런 선전활동에 “냉소 어린 반응”만을 보이는 미군정하 남한 지식인들과 그 좌파적 분위기에 좌절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①」, 『월간조선』 7-4, 조선일보사, 1986.4, 440면).

3) 선우휘, 「나의 처녀작을 말한다: 용초도에서 쓴 「귀환」, 『세대』 26, 세대사, 1965.9, 203-204면.

4) David C. Engerman, *Know Your Ene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51-55.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대학 인적자원연구소(HRRD)가 현지 인터뷰 활동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일환·정준영, 「한국전쟁의 ‘현장’은 어떻게 냉전 사회과학의 지식으로 전환되는가?」, 백원담 외, 『냉전아시아의 사상심리전』, 진인진, 2017. 참조.

서문에서 선우휘는 “꾸밈없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 문산과 인천과 용초도에서 만난 500여 명의 전우들 특히 아래에 기록하는 42명 전우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⁶⁾라며 특히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경험담을 가진 사람들의 관등성명을 기재해 두었다. 『귀환』은 국군포로들이 포로가 된 저마다의 경위, 수용소에서 겪은 참상, 또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의 심경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하면서 인민군의 잔학상, 이북 지역 민간인과의 교감, 미군과의 인종을 넘어선 우정, 북한 포로수용소의 사상교양 시스템 등을 두루 전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군포로들이 송환 이후 ‘재교화’를 받게 된 이야기를 담은 장(章)에서만 예외적으로 선우휘가 포로들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대신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공산주의로 전향했다가 송환과 더불어 재전향한 포로들의 ‘수기가 네 편 직접 삽입되어 있다. 물론 이 수기란 것도 포로들의 경험담에 근거한 선우휘의 가공과 창작의 소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는 문장 가운데 주관적 해석이 삽입될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나는 하나의 필기자에 지나지 않는다”⁷⁾고 되풀이 선언하던 서술자가 더는 남을 대신해 써줄 수 없는 지점에 봉착했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이야말로 『귀환』의 문제성이 가장 예민하게 맺혀 있는 지점일 것이다.

이 수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된 두 편의 수기만 살펴보자. 우선 「방아타령」이라는 제목의 수기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전투 중 포로가 된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친공적 전회가 결코 ‘사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5) 선우휘, 앞의 글, 204면. 팔봉은 『귀환』을 두고 “훌륭한 자유문학상감이었는데 그만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며 고평했고, 어떤 지인에게는 이만하면 소설을 써도 되겠다는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6) 선우휘, 『귀환』, 청구출판사, 1953, 6면.

7) 위의 책, 7면.

원래부터 「뛰어난 공훈을 세워 가슴에 잔뜩 훈장을 달고 내 고장으로 돌아
 가 마을 사람들과 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 뽐내보려」⁸⁾는 공명심과 인
 정욕구만으로 가득했던 그는 포로로 전락함에 따라 견잡을 수 없는 자존
 심의 상처를 입는다. 수용소에서의 “학습”은 “그것이 일방적인 전체주의
 적 독단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까닭에”(188면) 그를 ‘사상적’으로 설득하
 지는 못한다. 다만 공산주의로의 전향이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상해주리
 라 기대하면서, 그는 ‘혁명 투사’로 재출발해보기로 한다. 송환이 결정되
 었을 때마저, 그는 남한에 돌아가 보복당할 것보다도 여전히 “내 자존심,
 그것을 굳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만을 걱정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판문점
 에서 울려 퍼지던 ‘방아타령’의 가락을 듣고 한바탕 눈물을 흘린 그는, 용
 초도에서 또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지나친 자존심을 버려야” 할
 줄도 알아야 함을 깨닫는다(198면). 공산주의 사상교양의 이념적 구호들
 과, 용초도에서 받은 재교육의 이념적 구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럽
 게 뒤섞여 울리는 가운데, 그는 괴롭게나마 자기 자신을 추슬러 낸다. “내
 가 밟아온 고난은 건방졌던 생각까지도 그것은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었다. 하나도 내어버릴 패지는 없다. 인제는 어떠한 고난이 오드레도 그
 것을 참을 수 있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겸허하게.”(201면) 수기는 두 차
 례에 걸친 위험천만한 (재)전향의 이야기를 자기 형성 즉 성장의 이야기
 로 간신히 감싸 봉합한다. 수기 저자의 나이가 이만큼 어리지 않았다면
 이 위태로운 봉합은 아마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책은 한 권만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글쓴이 백관식은
 16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을 맞는다. 숙식을 해결코자 영국군 민간인부에
 지원한 그는 작전에 동행했다가 적의 포위를 받고 포로가 된다. 우시(霧

8) 선우휘, 「방아타령」, 위의 책, 184면. 이하에서는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는 것으로 간소화
 한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각각의 수기 및 소설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첫 인
 용시에 각주로 전체 서지정보를 밝히고, 그 이후에는 괄호 안에 면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
 소화하도록 하겠다.

時) 제6수용소에서 지낸 2년 6개월간, 그는 철저한 “교양”의 과정을 거쳐 혁명의 전사로 다시 태어난다. 가난한 출신성분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백관식은 수용소 당국자들의 눈에 들었고, 그 역시 열의를 가지고 처음 접한 배움의 세계에 몰두한다. “당사와 근대조선역사,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발전사 … 등을 교양받았는데, 나는 특히 사회발전사가 흥미있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였다. 매일 이는 것이 많아가는 것 같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았다”⁹⁾고 술회되는 학습의 과정 속에서 그는 실로 배움의 기쁨을 알아간다. 충실한 공산주의자가 된 그는 “학습태도가 나쁘고 반동적인 말을 하는” 다른 “학원”(學員, 포로들을 지칭)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을 밀고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포로들 사이에서 소외되어 간다.

하지만 송환이 결정되고 남한 땅을 밟자 백관식은 북한의 수용소 당국자들이 남반부의 적화라는 목적을 위해 자신을 길렀을 뿐, 인간적인 애정과 호의 따윈 전혀 없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애초에 “어려서 세상형편을 몰랐던 나는 포로로 붙들려가기 전에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터였다(213면). 이북에서는 공산주의 오직 하나만을 가르쳤으나 이남에서는 “공정한 눈에서 모든 것을 비교”하게 해준다고, 그런 새로운 교육 속에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요컨대 세상은 공산주의라는 “한 권의 책”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기가 특별한 것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이라는 이미 정해진 귀결 때문이 아니라, 이 전향의 과정에서 그가 겪는 혼란과 떨림이, 당혹감과 괴로움이 감추어지지 못한 채 텍스트 곳곳에 얼굴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과 당혹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사를 논리와 이치로 따져보기를 좋아하는 소년 백관식의 ‘교양 의지’와 깊이 맞물려 있다.

9) 선우휘, 「책은 한 권만이 아니다」, 위의 책, 207면, 강조는 인용자.

이렇게 나는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고 / 나는 **내 영킨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 나는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 / 공산주의라는 한 권만의 책을 읽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나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여러 가지 책을 여러 권 읽어야겠다. 그리고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반드시 나는 풀어놓아야겠다. / 그러나 펍 괴로울 때가 많다. 내 작은 머리로 풀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 또한 모르고 저지른 내 지난날의 죄악이 몽클하면 가슴을 치밀어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다**(218면, 강조는 인용자).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포로수용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가 처음으로 “근대조선역사”나 “사회발전사”와 같은 ‘근대적인 지식’을 경험한 공간이다. 공산주의가 단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근대 지식’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⁰⁾ ‘사상교양이 이루어진 북한 수용소는 폭력의 공간임과 동시에 실제로 어떤 의미의 ‘교육’이 수행된 공간이다. 그런데 그가 귀환 후 남한 수용소에서 받은 재교육의 내용이란, ‘사상이 없던 까마득한 시절에도 인간의 생활은 즐거웠다든지, ‘주의 사상이 없고 집이 가난해도 가족은 화목할 수 있다’든지, ‘어릴 적 친구 윤석이네가 부잣집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재산을 빼앗으면 잘못’이라는 등의 과히 조야한 것들이어서(216-217면), 근대사회와 그 모순에 대하여 그가 이미 획득한 어떤 앎을 결정적으로 번복하고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의 “영킨 생각”과 “수수께끼”를 좀체 수월히 풀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펍 괴로울 때가 많다”는 백관식의 토로는 바로 이러한 곤경의 표현이다.

선우휘는 왜 이들 나이 어린 포로의 수기가 가장 대표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일까? 송환 후의 에피소드로 실린 수기가 이 두 편이 전부는 아

10) 박현호, 「‘계급’ 개념의 근대 지식적 역학」,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2008.

니었지만,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과연, 회개하고 전향한 친공포로의 이야기는 어리숙하고 치기 어린 과오를 반성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른’이 주인공이라면 곤란했다. 자기 행동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는 어른이라면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뜻밖의 효과도 발생한다. 용초도에서 재교화의 과정을 겪고도 때때로 “깊은 시름에 잠긴다”든지(200면) 재교화의 사상적 내용이 불충분함에 설득되지 못한 나머지 곤란해하는 내면의 고백들은, 이 수기의 목적 즉 사상적 결백 증명에 있어 불필요할 만큼 솔직하다. 자기 생각에 대한 검열의 불철저에서 비롯하였을 이 진술들은, 그들이 너무 어렸던 데서 어느 정도 비롯하였다고 할 것이다.

두 편의 수기는 이 어린 포로들의 전향이 사실상 ‘사상적’ 전회일 수 없었음을 보여주며, 그런 점에서 ‘사상에 사상으로 맞서고 세계관에 세계관으로 맞선다’는 ‘사상전’의 개념을 와해시킨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즉 사상하기 때문에”¹¹⁾라는 발상은 당시 남한의 지식인들에게 상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기에 안호상이나 양우정 같은 일민주의 이데올로기들만이 아니라 못 지식인들이 모여 “세계관, 국가관, 인생관의 형성에 의한 사상과 이념의 투쟁”이 지닌 시급성을 논하고, 공산주의에 맞선 새로운 “지도이념”을 마련하고자 분주했던 터이다.¹²⁾ 하지만 『귀환』에 실린 두 편의 수기는 남한의 그러한 “지도이념” 형성과 사상전의 기획을 별달리 성공적인 것으로서 경험하지 못했음을 증언한다. 그보다 두 수기의 서사에서 이 어린 포로들은 어떤 탈-사상화의 과정을 겪는다.

11) 백낙준 외 6인, 「좌담회: 사상운동의 회고와 전망」, 『사상』 2, 사상사, 1952.10, 65면.

12) 이교승, 「창간사」, 『사상』 창간호, 사상사, 1952.9, 8면; 백낙준 외, 앞의 글, 59면. 후지이 다케시에 의하면 ‘사상전’의 기획은 일민주의를 이념적 거점으로 삼았던 조선민족청년단 계열 인사들이 몰락하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54년 국면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서 현저히 약화되며 육군본부 심리전감실을 통해 계승되는 굴절의 과정을 겪는다(후지이 다케시,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2008, 136-143면 참조).

「방아타령」의 글쓴이는 처음부터 사상 따윈 중요한 게 아니었음을 피력하며, 「책은 한 권만이 아니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남한에서 새롭게 받은 '교육'을 지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그저 이복에서 획득한 사상을 포기할 따름이다.

이처럼 '냉전'과 '교육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둘러싸고 풍부한 암시를 주는 『귀환』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이 글이 특별히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이 두 편의 수기는 “교양” “학습”과 같은 교육적인 수사로 넘치는 이 냉전(/열전)의 각축장에서 나이 어린 포로들이 양진영을 오가며 어떤 식으로든 성장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암시한다. 교양이라는 테마가 두 어린 국군포로들의 재전향을 퇴행이나 정체보다는 발전이나 진보와 연결 짓는다. 성장의 서사가 사상(전)의 불모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귀환』에 실린 두 편의 수기로부터 시사를 받으면서, 전후 한국에서 분단과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가 '성장'의 내러티브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물음에 부분적으로나마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적 논의로서, 선우휘 소설을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관점 즉 문제적인 젊음과 그 성숙의 소설적 재현이라는 화두를 통해 재독해 보려는 것이다.

2. 문제 설정 들: 전후의 교양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선우휘 읽기

'교양'과 '선우휘'라는 조합 자체가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얼마간 독법의 개연성을 확보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심사숙고하기보다 흔히 일부러 저지르기를 좋아하는 선우휘 소설 속 인물들은 직관적으로 교양의 이념과는 별 인연이 없어 보인다. 문학 용어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과 참여를 의미하는 '행동'은, 그런 행동에 나서기까지의 내면적인 준비와 자

기 형성을 의미하는 ‘교양’과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다.¹³⁾ 그런 까닭에 선우휘를 읽는 ‘행동주의’(혹은 ‘행동적 휴머니즘’)라는 전통적 독법은 일정한 설명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유사성에만 기초할 뿐 프랑스 행동주의 문학이 제기될 때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방향성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¹⁴⁾ 여기서 ‘행동’ 대신 선우휘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교양이란, 독서문화나 학벌 엘리트들의 문화적 아버투스를 논할 때 흔히 이야기되는 ‘교양주의’라기보다 문제적인 젊음의 소설적 재현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학병 세대 작가로서의 위상, 월남 작가로서의 특질과 로컬리티, 관전사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오늘날의 연구 경향에도 불구하고,¹⁵⁾ 선우휘 소설 최대의 화두가

13) ‘행동’과 ‘교양’ 개념의 대립적 의미는 다음의 글에서 가장 잘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배슈 아놀드, 윤지관 옮김, 「내키는 대로 하기」,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14) 전후에 프랑스 행동주의 소설을 열렬히 소개하며 이를 실존주의 문학의 전범으로 담론화하려 했던 김봉구가 선우휘의 「불꽃」을 두고 “이만하면 세계 어느 나라 문단이라도 현대 작품으로서 당당히 소개할 수 있으리라”(김봉구, 「지이드·죽음·불꽃」, 『불문학산고』, 신태양사 출판국, 1958, 274면)고 상찬한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행동주의 문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1934~35년경 파시즘의 흥기에 맞선 인민전선 노선과 문화옹호 국제작가회의와 같은 범좌파적 지식인 연대였고,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에서 행동주의가 논의된 것도 좌익문학운동에 대한 탄압과 퇴조 이후 비판적 사회참여의 대안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맥락에서였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휘말린 젊은이의 암약과 테러, 행동하는 지식인의 실존적 고뇌 같은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해 ‘행동적 휴머니즘’을 말하는 것은 당대 비평적 안목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답습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단적으로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1933)에서 테러의 대상이 된 장제스를 남로당 간부로 바꾸고, 공산주의 혁명에 투신한 테러리스트를 해방기 우익 테러리스트로(『깃발 없는 기수』, 1959) 바꿔놓는다고 해서 행동주의 소설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산주의=전체주의’에 맞선 인간성의 옹호라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해 논리적 충동을 느끼지 않고 프랑스 행동주의를 선우휘·오상원 등과 연결 짓는 발상이야말로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라 생각된다. 이는 실존주의 수용에 있어 냉전적 굴절, 전전과 전후의 단절이라는 주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15)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등을 참조.

언제나 '젊음'이었다는 사실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다.

또 최근에는 가족·지역에 기초한 '연대(의 불가능성)'나 서북 '소민주의'에 기초한 호혜적 관계 및 생계윤리에 주목한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¹⁶⁾ 이 논문은 선행 연구의 풍부한 성과에 빚지고 있지만, 선우휘 소설에서 반공주의적 대결과 관계된 면을 현저히 부차화하는 최근의 경향과는 분명 다른 논지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오랫동안 머리를 괴롭혀서 그것을 극복하기에 무엇을 창조해 본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¹⁷⁾고 토로할 만큼 반공주의는 선우휘에게 중대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을 자기 논리로서 어떻게 구성했고 또 어떠한 서사적 형태와 결합시켰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시도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기록까지 오롯이 전후문학/사상사의 궤적이라는 점에서 반공주의는 그저 선우휘 개인의 작가적 한계로 보아넘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젊음'과 '교양'이라는 화두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되어준다.

돌이켜보건대 「테러리스트」(1956)에는 기성세대 정치인들에 의해 함부로 쓰이고 버려진 젊음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화재」(1958)과 「도전」(1959)에는 부정한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기성의 질서와 단절하려는 청년의 세대적 투쟁에 가까운 몸짓이 있다. 선우휘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남성 동성간의 우정과 음담패설 섞인 왁자지껄한 술자리, 여성혐오, 종잡을 수 없는 방황(『깃발 없는 기수』, 1959) 등은 교양소설의 전형적 요소들이다. 그런가 하면, 『물결은 메콩강까지』(1966~67)에서 선우휘가 베트남전쟁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서사의 논리는 바로 주인공 남기욱으로 하여금 진정한 젊음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젊은 세대에서 기성세대로 승격인가 격하

16) 서세립, 「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 『현대소설연구』 67, 현대소설학회, 2017; 이명원, 「소민주의(小民主義)의 에토스」, 『한민족문화연구』 78, 한민족문화학회, 2022.

17) 선우휘, 「수상소감」, 『사상계』 50, 1957.9, 74면.

인가 되고 말았다¹⁸⁾와 같은 서술에 나타나는 젊음에 대한 강한 애착, 젊음과 나이 듦의 대비적 표상과 긴장은 선우휘의 후기작에도 공통되는 테마다.

무엇보다 「불꽃」(1957)에 쏟아진 동시대적인 찬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인훈의 『광장』(1960)이 출현하기 전까지, 「불꽃」은 사실상 전문 독자와 비전문독자를 통틀어 동시대에 가장 높이 평가된 전후 소설이었다. 동인문학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 박영준은 해방 이후 줄곧 우리가 바라왔던 바로 그 문학이요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형”의 발견이라는 찬사를 보냈으며,¹⁹⁾ 문익환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새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 기뻐했다는 감회를 전했다.²⁰⁾ 지금으로선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당대적 고평은, 이 작품이 1950년대에 부재했으나 많은 이들이 바라마지 않던 무언가를 충족해 주었던 데서 비롯하였을 터이다. 이어령은 이 지점을 좀 더 정확히 짚어냈다고 보인다. 주인공 현이 “음산한 구각의 고정관념에서 선탈(蟬脫)”하여 “무릇 있어야만 하는 한국의 젊은 초상”을 보여주었다는 그의 언급은, 「불꽃」이 다름 아닌 한 젊은이의 바람직한 각성과 성장 편력의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킨다.²¹⁾

『사상계』 지식인 그룹은 일찍이 “젊은 세대는 나라의 기둥²²⁾이며 자신들의 소임이 젊은이들에 대한 육성에 있다고 천명해 왔지만, 청년의 사회적 활약에 기대는 4월 혁명 전까지 어떤 희망 사항 이상이기 어려웠다.

18) 선우휘, 「포엠 마담」, 『선우휘 문학선집2』, 조선일보사, 1987, 170면.

19) 박영준, 「심사평」, 『사상계』 50, 사상계사, 1957.9, 71면.

20) 문익환, 「나와 한국문학」, 『사상계』 61, 사상계사, 1958.8, 289면. 그 외에 서울대 『대학신문』에는 “20대의 지식인은 행동과 실천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작가 선우씨의 부르짖음입니다”라는 흥분에 찬 작품평이 실렸고(이태주, 「지식인은 유패되어 있다」, 『대학신문』 1957.7.15.; 김윤식, 앞의 책, 24, 44면에서 재인용) 어느 『사상계』 독자는 “「불꽃」은 실로 보기 드문 거작”이라며 독후감을 보내오기도 했다(조윤석, 「「불꽃」은 위대하다」, 『사상계』 51, 사상계사, 1957.10, 247면).

21) 이어령, 「1957년의 작가들」, 『사상계』 54, 사상계사, 1958.1, 49면.

22) 장준하, 「권두언: 새 세대를 아끼자」, 『사상계』 33, 사상계사 1956.4, 13면.

신상초는 “내 주위에 ‘청년다운 청년’보다 ‘청년 아닌 청년’ 다시 말하면 반항에의 기백도 용기도 의욕도 잃어버린 젊은 층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한다고 한탄하였고,²³⁾ 한 대학교수는 웃어른의 권위 앞에서 필요 이상의 공대와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을 마음속으로 경멸했다.²⁴⁾ 전후의 청년들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1950년대 내내 사회적 주체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²⁵⁾ ‘젊음’은 적절한 문학적 표현의 의장을 입지 못했다.

한국문학사의 교양소설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두 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바로 이 시기, 조금 더 넓게 잡아 1945년부터 1959년까지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²⁶⁾도 이와 관련이 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해서, 항거하려면 항거할 수 없는 무의미한 항거”에 허우적거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젊은이의 초상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²⁷⁾ 내 안에서 보편성과의 연결을 느낄 수 없고 무언가 착실히 쌓아 올릴 수도 없는 진솔한 반-교양의 감각은 전후의 현실을 드러내는 징후로서 비단 손잡침만의 것이 아니라 전후문학 전반에 공유되던 것이었다. 요컨대 「불꽃」이 선풍적인 인기와 호평을 얻은 것은 그것이 예외적이기 때문이었으며, 선우휘는 ‘문체적

23) 신상초, 「레지스탕스(젊음을 요구한다 특집), 『사상계』 46, 사상계사, 1957.5, 215면.

24) 양재모, 「대중의 저항」, 『사상계』 71, 사상계사, 1959.6, 335면.

25) 1950년대 학생사회의 동향에 관해서는 오제연의 논문, 특히 1장을 참조(「1960-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26) 허병식, 『교양의 시대: 한국근대소설과 교양의 형성』, 역락, 2016; 복도훈, 『자복하는 속물: 혁명과 쿠데타 이후 문학과 젊음』, b, 2018. 허병식의 글은 이광수의 『무정』부터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까지 식민지기 장편 교양소설 전반을 아우른다. 복도훈은 1960년 이후 계등장해 한국소설사에서 주류적 양식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교양소설을, 4·19세대 작가들과 1960년대 한국의 근대경험이 가진 특수성에 착목하여 역사적 장르론으로서 고찰하고 있다. 단적으로 복도훈은 글의 서두에서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남북분단,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겪으며 한국 교양소설 장르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식민체협에서 탈식민체협으로 이동하는 모더니티의 역사적 경로 속에서 젊음을 상징적인 문화의 형식으로 문제화하려던 서사적 노력은 전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다”고 지적한다.

27) 손창섭, 「혈서」(1955), 『한국소설문학대계30: 잉여인간 외』, 동아출판사, 1995, 104면.

인 젊음'과 그 성장을 그려내려 한 유일한 전후 작가였다는 예외성으로부터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근대소설의 대표적 양식 중 하나인 교양소설은 기본적으로 근대의 여러 갈등적 요소들을 서로 '화해'시키려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등장한다. 그것은 무한한 발전·진보와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근대의 이념과 운동을 '성장'해가는 한 젊은이에 의탁해 표현하는 한편, 그러한 근대성의 운동 속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여러 효과, 서로 방향성이 다른 힘들을 '성장'의 내러티브 속에서 제어하고 타협시키려 한다.²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회화의 규범적 요구와 자기 마음의 원칙 사이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화해시키는 개인의 내면은, 그러한 '타협'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원래 모레티(Franco Moretti)에 따르면 교양소설은 조화로운 사회화, 화해와 타협이 바람직하며 또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사회적 조건이 준비된 시대에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장르이다. 더 이상 그런 믿음이 성립할 수 없는 시대에는 교양소설의 변형들이 출현하며,²⁹⁾ 제1차 세계대전은 역사적 의미에서의 교양소설 양식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으로 이해된다.³⁰⁾

그러나 문제가 꼭 그렇게 간단치만도 않은 듯하다. 제드 에스티(Jed Esty)의 경우 “유럽 교양소설의 사명은 근대화의 효과들(effects)을 안전한 서사적 틀 속에 재현함으로써 그 영향들을 관리(manage)하는 것”³¹⁾이었다고 모레티의 논지를 압축하고 있는데, 그의 맥락에서 한층 더 강조되는

28)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문학동네, 2005, 29-31, 35-38, 415면 참조. 물론 이것은 여러 교양소설의 유형 중 모레티가 '분류의 원칙'이 강하다고 소개한 유형의 교양소설, 즉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독일을 풍미한 고전적 교양소설의 주된 특징에 해당한다.

29) 이 경우 성장과 타협을 거부하고 영원한 젊음으로 남으려는 변형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젊음의 재현 또한 교양소설의 범주에 포함된다.

30) 위의 책, 414면.

31) Jed Esty, *Unseasonable Youth: Modernism, Colonialism, and the Fiction of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4

것은 교양소설이 어떤 균열에 대한 수습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케다 히로시(池田浩士)의 경우 단적으로 “위기”야말로 교양소설의 “구성원리”이며 “교양소설의 존재 자체가 위기의 존재를 고지(告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³²⁾ 요컨대 교양소설은, 교양소설 하면 흔히 연상되는 착실한 성장의 가능성이 이미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며, 그런 성장을 현실이 아닌 소설 속에서밖에는 구현할 수 없을 때 등장한다. 가령 이케다가 직접 거론하고 있듯이 좌익문예운동의 좌절 이후의 일본 전향소설이 흔히 교양소설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³³⁾ 애초에 독일 교양소설부터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건설의 좌절이라는 정치적 현실에 마주하여 그 좌절을 상상적으로 보상하는 기능을 했다는 후버트 오를로우스키의 지적도 좋은 참고가 된다.³⁴⁾ 이 경우, 교양소설은 되려 사회와 개인 간의 쌍방적 소통과 작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위기에 등장한 거짓된 화해의 서사이다. 그러니까, 반-교양의 시대에 예외적으로 등장한 선우휘 소설의 ‘성장’도 그와 비슷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상의 초극, 「불꽃」과 『깃발 없는 기수』의 교양 이념

「불꽃」은 주인공 고현(高賢)이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어느 동굴에 잠서 피신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동굴에서 31년 전 3·1운동 당시 목숨을 잃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현이 자기 일생을 반추하는 것이 이 작품의 열개다. 현은 전근대적 인종(忍從)의 윤리와 제 분수 지키기만을 고수하

32) 池田浩士, 『教養小説の崩壊』, 現代書館, 1979, 12-13면.

33) 위의 책, 226-248면 참조.

34) 후버트 오를로우스키, 이덕형 옮김, 『독일 교양소설과 허위의식』, 형설출판사, 1996, 147-157면.

는 할아버지 고 노인, 오직 종교에 의탁해 외로운 삶을 견디는 어머니 아래서 유년기를 보낸다. 중학 시절의 현은 그저 자기 공부에 매진하였고 졸업 후엔 그저 어머니를 모시며 안온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고 노인으로부터 받아들인 유년기부터의 교육, 즉 사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발상이나 저항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금기는 어느새 현 자신을 형성하는 일부가 되어 있다. 그는 “남이야 어떡하든 내야 열려들 것이 무엇이랴”는 생각 속에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저는 저대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³⁵⁾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 편력시대가 열리는 것은 유학을 떠나면서부터다. 대학 시절의 독서 경험은 현에게 “개인 존재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긴 사상과 만나게 해주기도 한다. 반면 당시 많은 학생이 경도되어 있던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는 “전체주의 경향과 흡사한 체취”에 “본능적인 혐오”를 느꼈고(57면), 일본인 교수가 설파하는 ‘팔굉일우’와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었다. 현에게 ‘사상’이란 “결국 종이 위에 씌어진 …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으로 다가오며, “그의 행동에 변동을 일으키는 힘”을 갖지 못했다는(56면) 환멸의 기록과 함께 그의 사상편력은 때 이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조급한 환멸은, 공동체(국가·전체)의 논리와 개인의 논리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둘러싸고 현이 진지하게 고민을 떠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저 내 삶을 살겠다는 내면의 요구와,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사회화의 요구 사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현이 보기에 아시아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운운하고 맹주의 역할을 자임하는 소위 ‘태평양전쟁의 사상’은 “누구도 원치 않는데 스스로 나서서 결과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선민의식과 값싼 영웅주의적 감정”(59면)에 기초해 있는데, “원치도 않는데 기를 쓰며 구해주려는 것은 고맙지 않은 참견”(61면)이다. 공동체로의 합일이 이처럼 제멋대로인 강자의 논리에 얽혀들어 희생되는 방식이라면

35) 선우휘, 「불꽃」, 『선우휘 문학선집1』, 조선일보사, 1987, 54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것대로 공동체에 귀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책과 사상의 세계에서 답을 찾을 수 없던 그는 다시금 “자기의 껍질”(69면) 속으로 회귀해 간다.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보내졌다가 탈출해 돌아온 현은 “해방이란 앞서서 얻어진 것, 그러므로 호통을 칠 이유도 없”(68면)다고 생각하며 해방의 광장이 시끄러운 노호로 가득함에 불쾌함을 느낀다. 새롭게 자리를 얻은 여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장과 좌익교사들 사이의 분쟁도 그를 질리게 할 따름이다. ‘사상’과 ‘정치구호’로 술렁이는 분위기에 얽히기를 거부하고 해방기의 세태를 등진 그에게 변화의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조선생이라는 인물의 등장이다.

여기서 조선생은 이북의 공산주의화에 견딜 수 없어 일가족과 함께 월남했고 ‘국문과’ 출신으로 현의 잘못된 일어식 표현을 교정해주는 어떤 대한민국적인 규범성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또한 그녀는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들을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대한민국의 부름을 현에게 고지하는 대리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은 “공연히 참견해서” “결과적으로 남을 해치는 경우”를 여럿 보아왔고 “남의 한계를 침범할 생각은 없”다는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74-76면). 조선생의 부름으로부터 ‘시선을 피한’ 그는, 하지만 더 이상 개인의 껍질 속에 머무를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한다. 한국전쟁이 그것이다.

인민군에 점령당한 서울에서 현은 점령군으로 돌아온 옛 친구 연호로부터 인민공화국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받는다. 연호와 한바탕 논전을 벌인 현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좁고 무해한 세계마저 용인하지 않는 집요한 존재들임을 절감한다. 인민재판에서 조선생의 부친이 희생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현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끝내 그를 굴복시키려는 연호와 최후의 혈전을 벌인다. 현과 연호의 충성이 교차하는 작품의 말미에서 현은 일생일대 각성의 순간을 맞는다.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마치 돌멩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살아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고 어땀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 없도록 결박된 이 처지. ... 청부업자들을 거부하자. ... 꺼리고 비웃는데 그치지 말고 정면으로 알몸을 던져 거부하자.(91-92면)

이 유명한 장면이 작품에서 제시되어 온 모든 ‘기성적인 것’의 극복을 집약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근대적 인종의 윤리(조부적인 것)로부터의 탈피, 종교적 초월성에의 의존(어머니적인 것)을 넘어서 세속적 실천의 다짐, 부조리에 맞선 실존적 결단이라는 중층의 겹이 존재하며 현의 각성은 이 중층의 겹을 모두 종합하기에 비로소 ‘성장의 순간’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면은 교양소설의 문법에서 어떤 ‘사회화’ 즉 기성 질서와의 타협에 이르는 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산주의자들을 “꺼리고 비웃는데 그치지 말고 정면으로 알몸을 던져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공동체가 바라마지 않는 사회화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대로 살겠다’는 내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외면”과 유예의 시간은 확신에 찬 각성을 통해 종료된다. 현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이제 기꺼이 하기를 갈망하며 자발성과 개인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사회화 요구를 수락한다. 요컨대 「불꽃」은 “개인성으로 가는 접근로를 막지도 않고 또한 개인성의 가치를 낮추지도 않으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소신 있게 개인성의 길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³⁶⁾ 모든 부조리와 기성적인 것에 저항하는 듯한 몸짓 속에서 특정한 기성적 질서를 수락하는, 이 양면성이야말로 「불꽃」이 전후 소설로서 갖는 문제성의 핵심을 이룬다.

36) 프랑코 모레티, 앞의 책, 121면.

이처럼 「불꽃」은 장편소설의 규격을 갖추지는 못했을지언정 개인의 성장과 자기 형성을 반공 국가의 요구와 일체화시킴으로써 “반공의 교양”³⁷⁾의 전후적 양식을 완성한다.³⁸⁾ 적의 절멸을 기약하는 공격적 반공주의는 현의 “젊음에 종결을 선언하는 권위”³⁹⁾로서 그를 어른이 되게 한다. 반공의 교양은 분단국가의 규범적인 남성 반공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 발전과 진보인가라는 불온한 물음을 제압하고 그 대신 그러한 규범적 주체가 되는 것 자체를 가치화한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현의 어른스러움을 보증하거나 성장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존재들에 관한 묘사이다. 이른바 ‘주의 사상의 신봉자들’이 그들이다. 적어도 ‘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현은 새롭게 배우지도 깨닫지도 않고 따라서 이 점만큼은 성장 서사의 독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栄治郎)의 『학생총서』 시리즈나 토머스 그린(Thomas H. Green)에 대한 언급이 스치듯 등장하긴 하지만(57, 61, 64면), 이런 자유주의의 사상적 전거들은 당시 학생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읽히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특별히 현의 자기 형성에 기여했다는 무게감

37) 반재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참조. ‘반공의 교양은 한국전쟁기 남한의 문화적 재현에서 ‘적’이 ‘청년’으로 표상되었음에 착안하여, 남한으로의 귀순, 투항, 전향, 자수에 ‘성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방식 및 그러한 발상을 구현한 전시기 장편 교양소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제안된 바 있다.

38) 후지타니 다카시는 패전 직전에 개봉된 이마이 다다시(今井正)와 최인규 공동 감독의 영화 〈사랑과 맹서〉(1945.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즉 이 영화는 고아 출신의 조선인 청년 ‘에이류(영용)’가 젊은 시절의 불확실성과 방향을 거쳐 카미카제 조종사가 되기로 결의하게 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단순한 굴종의 결과가 아니라 확신에 찬 자기 선택으로 묘사하고, 이 선택을 통해 어른스러운 일본인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이 전형적으로 교양소설의 관습적 서사라는 것이다(후지타니 다카시, 이정훈 옮김,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소명출판, 2019, 518-520면). 국가주의 및 전쟁과 관련해 교양소설의 서사적 코드가 활용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런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이 글의 역량을 초과하는 것이며 우선 1950년대 한국 소설사로 문제 영역을 국한시키기로 한다.

39) 프랑코 모레티, 앞의 책, 326면.

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⁴⁰⁾ 되려 작품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두드러지는 것은 이런 사상적 전거보다 주의 사상의 신봉자에 대한 강한 경멸의 표현 (“청부업자”)이다.

현(賢)은 그의 이름이 암시하듯 ‘사상’에 관해선 처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고, 경험을 통하기보다 ‘직감’한다. 유학시절에 접한 마르크스주의는 “도식화한 관념으로 역사를 판가름하고 집단의 위력으로 인간을 죄어 틀에 박으려는 살벌한 냉혹과 숨막히는 병적 흥분이 있”다고 한눈에 간파된다(57면). 대동아공영권의 정당화를 위한 당시 일본의 철학적 논변과 공산주의를 등치시키는 작품의 내적 논리도 문제적이지만, 전자의 문제를 서너 쪽에 걸쳐 충분히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산주의에는 그저 “본능적 혐오”를 느낄 따름이다. 학병에서 탈출하는 길에서도 현은 “공산주의 이론은 『정감록』과 다름없는 운명의 예언서”라 단박에 예지하면서 그런 헛된 망상에 들뜬 군상에 혐오인지 연민인지 모를 시선을 보낸다(67면). ‘연민’의 감정은 현이 소위 사상한다는 사람을 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태평양전쟁의 사상’에 감응하는 아오야기에겐 “측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61면), 자기를 굴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 연호에게도 “연민과 동정의 빛”이 어린 시선을 보낸다(83면). 물론 이 일련의 표현은 현이 그들을 깔본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인데, 그는 줄곧 인식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가정된다.

“도대체 이들은 어째서 그렇게도 남의 걱정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단 일까. 그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숨웃에 꿇는 이를 퇴치하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67면)와 같은 서술이 단적으로 드러내듯, 사상하는 인간군상에 대

40) 이 중 일본인 친구 아오야기가 학병으로 나갈 때 아오야기 자신은 『하가꾸레(葉隠)』와 『만요슈(萬葉集)』를 갖고, 현에게는 토머스 그린과 『학생 총서』를 주는 장면이 흥미롭다. 독일 전물 학생의 수기도 언급되는데, 모두 전시체제가 일본 교양주의 하면 흔히 기억되는 것들이다. 이처럼 서로 지적 전거를 나눠 갖는 장면은 전시기 일본인 청년에게는 ‘전체주의’를, 조선인 청년에게는 ‘자유주의’를 각각 할당하는 의도적 구상에 의해 그려져 있다(61면).

한 현의 태도는 어떤 ‘몰이해’이다. 그것은 특별히 그가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신봉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범주를 벗어나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에 따라 세상을 바꾸려는(타인에 작용을 가하려는) 것이 현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⁴¹⁾ 그리하여 현은 ‘사상’이라는 불가해한 현상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상하는 사람이 지닌 행동의 동기를 ‘심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은 공산주의자 연호와 논쟁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나?” / “근거 없는 **미움**이 들끓고 있는 때이겠지. … 인간 서로의 **미움이란 미움이 미움을 낳는 악순환**밖에 가져 오질 않아. … 미워할 것은 **인간이 지닌 어리석은 조건**일세. 자네나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의 독소**, 남을 억압하려는 **포악성**, 착취하려는 **비정**, 남보다도 뛰어났다는 **교만**, 스스로 나서려는 **값싼 영웅주의적 참견**, 남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무엄**, 그런 것들이겠지. … “어째서 그것이 자기희생인가. 누가 그것을 청탁했는가. **자아도취와 허영**에 치른 값이 어째서 희생인가.”(80-81면, 강조는 인용자)

공산주의를 수식하기 위한 현의 번역어는 “미움”, “포악성”, “비정”, “교만”, “영웅주의”, “무엄”, “자아도취와 허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하나같이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은 사상이 현실과 맺는 관련을 부인(disavowal)한다. 사상은 현실적인 사회적 모순이나 그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어떤 마음의 문제이다. 공산주의란 “까닭 모를 복수심의 민족”이요(67면), “굴욕의 울분을 일거에 풀어보리라는 의도”에 이끌린 얇은 행태

41) 가령 현이 ‘태평양전쟁의 사상’을 설파하는 교수에게 반론을 하면서도 그런 자기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장면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공연히 충동을 받고 … 십억 아시아 민족의 청탁이나 받은 듯이 스스로 일어서서 항의한 것이 싫어졌다”고 말한다(59면). 여기서는 사상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또 다른 행위, 즉 어떤 대표성 수행에 대한 그의 거부감이 새겨져 있다.

에 지나지 않다(71면). 요컨대 (좌익)사상이란 한갓 어리석고 치기 어린 마음의 작용에 지나지 않으니 이를 깨닫고 어른이 되라는 것, 이것은 선우회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고집했던 교양=냉전의 논리였다.

선우회의 발상이 「불꽃」의 발표 당시 한국에 막 수용되기 시작하던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 특히 그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초기 저작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특기해 둘 만하다. 법률과 제도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실제 행태에 착안하여 정치학 연구에 심리학·사회심리학적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요약되는 행태주의 정치학은,⁴²⁾ 사상과 이념을 인간의 정치적 행동을 추동하는 동기로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동태분석』(*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에서 정치적 행위란 사적인 동기와 억압된 충동이 전치(displacement)나 투사(projection)와 같은 프로이트적 기제를 거쳐 공적인 언행의 외형을 취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⁴³⁾ 여기서 사적인 동기란 이를테면 “사회로부터 널리 칭찬을 받고 싶다”는 욕구 같은 것을 가리킨다.⁴⁴⁾ 언뜻 공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듯한 정치적 언행 이면에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비합리적이고 지리멸렬한 인간 심리가 자리한다는 것이야말로 라스웰이 나치 독일을 통해 발견했고 또 공식화하려 했던 바다. 유물변증법 또한 그에 따르면 “사적인 가치관단을 보편적인 세계사에 비추어 이해하는 한편 개인적 희망을 절대적 필연성에까지 높여 사회를 원하는 대로의 형으로 개조하여 소외된 자아를 전체의 상징과 동일화시킴으로써 다시 본래의 자아로 회복시키는 일”로 정의된다.⁴⁵⁾ 여기에 사상이 갖는 현실과의 관련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42) 윤천주, 「정치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 『법정』 15-2, 법정사, 1960, 47-48면.

43) 해럴드 라스웰, 이극찬 옮김, 『정치동태의 분석』, 사상계사출판부, 1960, 132면. 사람은 누구나 유년기부터 억압된 충동을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승화시키도록 교육받는데, 정치가는 이 승화작용에 있어 매우 안정된 유형의 퍼스널리티의 소유자라고 정의된다.

44) 위의 책, 134면.

45) 위의 책, 33면.

『깃발 없는 기수』에서는 행태주의와 일면 상통하는 선우휘의 인간관이 보다 전면화되고 있다. 「불꽃」이 현의 각성의 순간과 최종적인 정체성의 획득을 향해 직선적으로 전개된다면, 『깃발 없는 기수』는 해방기의 정치적 세태와 타협하지 않는 젊은이의 방향을 그리는 데 집중한다. 주인공 허윤은 해방 직후의 서울에서 이데올로기의 구호가 난무하는 거리를 종횡무진 누비는 신문기자다. 친구 순익의 배신, 하숙 주인집 아들 성호의 죽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 끝에, 그는 아이들의 목숨마저 동원하는 그 모든 악의 원흉으로서 공산당 지도자 이철에 대한 암살을 기도한다. 작품은 이데올로기의 은유인 ‘깃발’을 갖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서 자기를 정립하고 이제 막 결정적 행동에 투신한 허윤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현실을 … 자기의 절실한 문제로 보고 힘을 다하여 부딪쳐가는 성실성과 정열”⁴⁶⁾에 찬 젊음의 초상으로 장식한다.

윤은 좌익적 분위기로 술렁이는 해방기 서울의 ‘탁류’에 ‘항(抗)’하여, 마치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한 명의 문제적 청년이다. 그는 작품 초반부터 “우리 엽전에게도 뭐 있긴 있을 텐데 말야 … 난 그것을 찾고 말 테야”(29면)라며 “굉장한 논문 구상”(26면)이라고 불리는 자기 나름의 인생관을 탐색한다. 이 고민은, 윤이 공산당 지도자 ‘이철’에 대하여 직관적 반발심을 느끼지만 그 반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할 분명한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있던 것과 맞물려 있다.

이강국을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소설 속 인물 이철은⁴⁷⁾ 윤임이라는 옛 연인과의 잠자리를 이용해 미군정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으로

46) 선우휘, 「깃발 없는 기수」, 『선우휘 문학선집3』, 조선일보사, 1987, 22면.

47) 이강국에 대해서 선우휘는 만년에 직접 회고를 남긴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대안 투쟁 현장에 실제 취재를 나갔던 경험을 회고하며 “당시의 젊은이들 가운데 인기가 높았던 것은 이강국이 경성제대 출신의 수재”였던 때문이고, “나는 이강국의 학력이 경성제대 출신이라는 점이 그 후 상당기간 서울대학생들의 좌경에 영향을 주어 왔다”는 관점을 드러낸 바 있다(선우휘, 「나의 연륜생활 40년①」, 441면). 이는 『깃발 없는 기수』의 상황 묘사(69면)와 일치하는데, ‘이철’이 독일 유학 출신이라는 설정 역시 이강국의 실제 이력과 일치한다.

등장한다. “녀석이 ‘고민이 수태(코뮤니스트-인용자 주)’니 노동자 농민하구 떠들 때보다 되려 윤임의 젓가슴을 더듬을 때 정말 사람답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지”(49면)라는 것이 윤과 그 친구들의 직관이다. 그는 「불꽃」의 현이 그러했듯 이철과 같은 공산주의자가 모두 위선자라는 것을 안다. 다만 왜 그런 직관에 이끌리는지, 정확히 어떻게 꼬집어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⁴⁸⁾

작품에는 윤이 음담패설을 하거나 사창가에서 성매수를 하는 장면이 유독 많은데 결코 부수적 요소만은 아니다. 윤과 그 친구들은 성충동뿐 아니라 폭력성과 같은 자기 안의 일차원적 충동을 시인하는 데 매우 솔직하다. 이런 요소들은 시도 때도 없는 윤의 성충동과 그에 대한 솔직함이야말로 위선적인 정치적 선동에 비하면 인간적 진실성을 담고 있다는 이 작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허윤은 자기가 어렴풋이 느껴오던 것에 분명한 표현을 얻는다. 국대안 반대 투쟁 현장에 취재를 나간 그가 대학 건물의 화장실에 들었을 때 발견한, 온갖 좌경화된 정치적 구호로 뒤덮인 화장실 벽면 한켠에 쓰여 있던 다음과 같은 문구이다.

‘뒷간에 들었으면 똥이나 싸라.’ / 신문사를 거쳐 해방옥으로 달려간 윤은 형운이를 붙들고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 “형운이, 이전 논문의 결론을 얻었어. … 형운이, **진리**는 어떤 경우에 발견된다고 생각하니? … 난 그것을 냄새나는 뒷간에서 발견했단 말야.” / 윤은 낙서 얘기를 죽 내리했다. / “어때, **진리지?** 뒷간에 들었으면 똥이나 싸라. 모든 낙서가 일순에 무색해지더군.”(71면, 강조는 인용자)

“진리”를 발견한 그는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작용에 관해 큰 깨달음을

48) “모든 게 못마땅하고 아니꼽단 말이야. … 참을 수 없거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 … 무엇이든 따끔하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 그걸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가물가물한 데 글씨 그제 뭐냐 말이야.”(51면)

얻은 듯한 기분을 느낀다. 윤은 곧장 윤임의 호텔방을 찾아 그녀를 협박하고, 이철과 달리 오직 “침대에 들었으면 껴안고 자는 것”만이 자기 목적임을 천명함으로써 스스로 바-이데올로기적 존재임을 천명한다(78면). 이제 그는 거침이 없다. 이철과의 즉흥적인 인터뷰를 벌여 윤임과의 관계를 깨물고는 당황하는 그에게 “침대에 들었으면 그거나 하시지!”라 조롱함으로써(81면), 윤은 자신이 이철보다 더 인식적으로 우월함을 확인한다. “이철이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건 윤임이 때문인지 몰라. 그날 밤 윤임이와 어거지로라도 잤어야 했을걸 하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랬다면 공연히 핑계를 찾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는지 몰랐다는 생각도 들었다. … 그것 때문이야.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연히 쓸데없이 뜻을 찾고 지랄을 치는 거(131면)”라는 인간사의 너절한 진실을, 윤만은 깨달은 터이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진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체를 탐하거나 ‘똥을 싸는’ 일차적 욕구이다. 『깃발 없는 기수』는 공산주의자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사상하는 인간 그 자체를 사상(捨象)하고 만다.

작품에서 또 하나의 줄기를 이루는 것은 ‘좌익 소년들’의 지도와 교육을 둘러싼 쟁탈전이다. 윤은 성호를 두고 성호의 아버지와 경쟁하며, 이철·강태 등 공산당 지도자들로부터 명철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탈환하려 한다. 성호의 아버지가 조직에의 충성과 행동을 통해 어른이 될 것을 요구한다면, 윤은 “행동할 때라기보다 배울 때”라는 교양주의적 가르침으로 그에 맞선다(40면).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입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호를 ‘교육’하고자 한 윤의 시도는 성호의 죽음으로 한 차례 좌절된다. 마지막 취재를 나간 시위 현장에서 윤은 공산당 지도자들에 의해 난투극에 끼어 상처 입은 명철이란 소년을 구출해 낸다. 그리고는 명철이를 계몽시키기 위한 문답을 주고받는다.

흥미로운 것은, 작품이 이 마지막 문답에서 윤을 패배시킴으로써, 즉 계몽과 교화에 실패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로부터 어린아이들을 ‘구출’하는 대신 공산주의에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속성(어리숙함)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문답에서 윤의 논변은 영성하기 짝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선 투쟁밖에 없냐?”라는 윤의 물음은 “투쟁을 해서 이겨내야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즉답에 가로막히고, “그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너는 그 날 신발을 잃었지? … 그러니 너는 그만큼 손해본 게 아니냐?”라는 윤의 수준 낮은 물음은 “제 생각만을 하면 조그만 손해지만 인민 전체를 두고 생각하면 이로운 거”라는 현명한 답에 가로막힌다. “못 사는 것이 누구 때 문이든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 … 내가 잘살겠다고 들이뽀비는 게 죽도록 싫었”다는 윤의 논리는 지극히 빈곤한 데 반해 소년의 논리는 흠잡기 어려울 만큼 명료하다(122-123면). 문답은 소년의 직선적 논리에 질린 윤의 패배로 끝난다.

이 장면은 공산주의에는 소년의 이미지, 즉 논리적 단순성과 바로 그 단순성 덕에 성립하는 논리적 정합성을 부여하는 반면, 윤에게는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늘변을 준다. 윤이 말과 논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작품이 겨냥하는 바가 아니다. 반대로 작품은 세상사 간단치 않음을 떠안고 설득하려는 윤에게 어른다움을 부여한다. 세상사를 이데올로기의 법칙과 논리적 정합성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흔히 쓰이는 ‘좌익소아병’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어떤 유아적 이상주의와 아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행태주의 정치학에 가까운 윤의 인생관이 통찰하는바 인간사의 너절한 진실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미성숙한 소년적 존재들은 언젠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박인이라는 공산주의자 청년에 대한 묘사에서처럼, 그들은 “호수같이 맑은 두 눈”과 “어린애같이 희디흰 흰자위”, 그리고 “무어라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또렷또렷한 말씨”를 가졌다(82면).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와르르 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는 되려 사람답게 되고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 이야.”(89면)

말로 승리할 수 없기에 윤은 다만 몸을 던진다. 작품은 이철에 대한 암살이라는 우격다짐으로 끝난다. 그렇게 윤은 고민과 방향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자기 손을 더럽혀 최종적 입사 의례를 치른다. 그러나 윤은 소년들을 얻지 못했다. 정확히 말해 소년 젊음은 공산주의 그것의 이미지로 전가되었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가슴 안에서는 굳은 신념 같은 것이 불길처럼 타고”, “눈에는 무한한 꿈이 깃들”어 있는 형상은 청년의 모습으로서 가장 상징성을 지니는 까닭이다(83, 87면). 윤은 공산주의에 맞서 젊음의 형상을 전유(專有)할 수 없었으며 그러했기에 어찌면 제대로 어른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일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선우휘가 좀체 해결할 수 없었던, 교양=냉전의 논리가 지닌 딜레마였다.

4. 선우휘식 교양=냉전 논리의 균열 지점들

「불꽃」과 『깃발 없는 기수』는 교양소설로서 매우 불안정하다. 이 작품들의 교양 이념은 ‘교양이 지닐 수 있는 의미의 편폭을 담아내기보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냉전 경험과 얽혀 그로부터 직접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과 윤은 겉보기와 다르게 “아직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떤 가치를 위해 싸우”⁴⁹⁾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젊음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57~59년의 시점에서, 현과 윤이 관찰하려 한 것은 사회적으로 새롭게 설득해내야만 하는 도전적인 가치가 아니었다. 되려 그것은 남한이 권장하는 익히 규범화된 기성의 가치였으며 이제 곧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선우휘는 반공주의가 공동체의 지배적 규범이 되기 전인 해방 직후를 배경 삼아 자기 젊은 시절의 경험을 문제적인 인정투쟁담으로 장식해 놓았다. 그 결과 「불꽃」의 현과 『깃발 없는 기수』의 윤은 아버지와 투쟁하지 않고 아버지가 적대하도록 허락한, 국가의 공인된 적과 투쟁하는 모양새가 되고

49) 프랑코 모레티, 앞의 책, 390면.

만다.

미완의 유고(遺稿) 「나의 언론생활 40년」 시리즈는, 실제 선우휘의 해방기 체험에 관한 기억이 그야말로 어리숙한 젊은이의 환멸과 고독에 찬 성장 서사였음을 보여준다. 신의주에서 학생들에 총격을 가하는 충격적 현장을 목도하고, 소련군의 점령과 공산주의화에 따른 혼란상을 경험한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양친과 막냇동생 일가족을 이북에 두고 월남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북의 실상’을 알리고자 신문기자가 되어 분투하던 그가 마주한 것은 남한 지식인들의 “냉소 어린 익살이거나 일종의 충고”였다. 그는 “환멸을 느꼈고, 절망을 느꼈고, 비판에 사로잡혔다.”⁵⁰⁾ 하지만 좌익 정치의 ‘멋짐’에 이끌려 흥청거리는 서울의 분위기에 마냥 녹아들 수 없었다고 한다. “번민하면서 차차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던 나는 시대의 대세인 지식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데서 오는 고독감을 씹으면서, 내 나름의 주관을 착실히 구축해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젊은 날의 초상이었다.⁵¹⁾

문제는 이 젊은 시절의 성장담이 ‘어른 되기=대한민국의 국민 되기’에 급속히 빨려 들어간다는 점이며 이때 자기 젊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기도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이다.⁵²⁾ 잘 알려져 있듯 선우휘의 초기작 「테러리스트」(1956)는 해방기 우익 청년단 출신자들의 후일담을 그리고 있는데,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기성세대 우익 정치인들에 의해 함부로 쓰이고 버려져 너무 일찍 끝나버린 젊음을 둘러싼 회한과 원한의 정서이다. 기성의 질서에 마음껏 저항해 보고, 자기 젊음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 채 조로해 버리고 말았다는 ‘젊음의 콤플렉스’야말로 『물결은 메콩강까지』

50) 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①」, 440면.

51) 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②—비에와 낙망의 초기 기자 시절」, 『월간조선』 7-5, 조선일보사, 1986.5, 468면.

52) 정주아 또한 이북의 공산주의화에 환멸을 느끼고 망명을 택한 월남민들이 대한민국 국가주의의 흡수 앞에서 그 ‘진정성’을 위협받게 되는 ‘위기’에 관해 지적인 적이 있다(정주아, 앞의 글, 276-277면).

(1966)와 「현실과 지식인」(1969)까지 이어지는 그의 글쓰기를 방향 짓는 숨은 벡터이다. 선우휘가 4·19 이후의 새로운 세대에게 고압적으로 '어른 되기=반공 주체 되기'를 강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젊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젊음의 상징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대상에게 필요 이상의 경쟁의식과 공격성을 드러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⁵³⁾ 특히 이 경쟁의 상대로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빨치산/공산주의자)이었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균열은 그야말로 '대결'을 통해 성립했던 그의 교양소설이 어쩌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준다.

「불꽃」과 『깃발 없는 기수』의 교양 이념이 '초극'하려 것은 비단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상하는 인간' 그 자체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작품들은, 그들이 손쉽게 부정되지 않는 복잡한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승패」(1958)에서 훈은 이북의 동향 친구 서구를 찾아 남원의 포로 수용소로 향한다. 그런데 친구 서구와의 재회는 반갑기는커녕 시선을 마주치면 “등허리에 순간적으로 짝 소름이 스”칠 정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하다.⁵⁴⁾ 서구는 포로수용소를 찾아온 훈이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

53) 이런 히스테리적 양가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현실과 지식인」(1969)이라는 텍스트이다. 이 글에서 선우휘는 4·19 이후의 젊은 세대를 '좌익 이데올로기에 들린 존재들로 간주하고, "순수성이란 미숙성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충동적인 행동력이란 범피적이지 않다"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어른'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선우휘, 「현실과 지식인」, 『아세아』 창간호, 아세아사, 1969.2, 80면). 그러나 4·19세대의 당사자인 박태순이 반론에서 쓰고 있듯이, 선우휘의 글은 젊음에 대한 이상하리만큼의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 점에서 되려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박태순, 「젊음이는 무엇인가」, 『아세아』 2, 아세아사, 1969.3, 206-207면). 이러한 공격성, 도전해 오는 젊은이들을 향한 "아직 물려줄 수가 없어!"와 같은 흥분된 외침은 선우휘 자신이 그 젊음의 상징성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달리 말해 상대방을 젊음의 '경쟁상대'로 여기는 데서 비롯한다. 「아아, 내 고장」(1964)이나 『물결은 메콩강까지』에서는 한참 나이 터울이 있는, 갓 스무 살을 넘긴 정도의 젊은이들에게 시비가 걸려 직접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모티브가 반복되는데, 작품발표 시기로 보아 4·19세대나 6·3세대라고 불릴 만한 젊은이들일 터이다. 1960년대 중반경 이후에 유독 이런 재현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훈은 그런 서구의 태도에 압도당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어릴 적부터 서구는 조금의 흔들림이나 망설임도 없는 인물이었고 세상만사를 “거리낌 없이 한칼로 썸뺌 갈라놓는 그의 선명함” 앞에서 마찬가지로 어렸던 훈은 늘 어정대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곤 했다. 서구는 훈에게 존경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해방 이후에 서구는 항일무장투쟁의 이력을 갖춘 젊은 혁명가로서 귀국한다. 흠잡을 데 없는 그의 혁명가적 품모와는 달리, 훈은 확고한 세계관을 갖지 못해 방황한다. 월남을 시도했다가 되려 남한에 더 깊이 실망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훈은, “한 점의 티도 없이 투명한 신념에 찬 서구” 앞에 다시금 굴욕적인 모습으로 선다(147면). 이미 당의 실력자가 된 서구는 고향에 돌아온 훈이 북조선 사회에 적응하고 중학교 교원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훈은 서구의 독선적 냉철함에 환멸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다시금 월남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포로수용소에서 재회하기 전까지 간직하고 있던 서구에 대한 훈의 마지막 기억이다.

훈은 재월남 이후 자기 나름의 삶을 꾸려가지만, 시종일관 서구와의 가상적 대결을 머릿속에 그린다. 나이 어린 인민군 소년병을 사로잡았을 때, 국군의 승리 후 점령지 민간인들의 환호를 받을 때, 훈은 마치 서구에게 이긴 듯한 기분을 느낀다. 퇴각과 함께 빨치산이 된 그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에, 훈은 승리를 확신하며 남원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토록 화려하던 기사는—날개 찢긴 기사는 지금 얼어 썩은 손가락을 자르고 천막 속에 누워 있는 것이다. 지금 그는 패배를 자인하고 있을까. 아니다”(156-157면)라는 생각에 이르면 그의 심사는 뒤틀리고 마는 것이다.

훈은 군법재판에 회부될 서구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동분서주한다. 승리자로서의 시혜를 베푸는 훈은 불고기를 사지만 서구는 고기에 입조차 대

54) 선우휘, 「승패」, 『선우휘 문학선집1』, 조선일보사, 1987, 144면.

지 않는다. 훈은 “지근지근한 세속적인 맛”(158면) 속에서 그의 사상성이 누그러지도록 서구에게 결혼까지 알선한다. 그렇게 서구는 남한 땅에서 결혼해 아들을 본다. 결국 서구를 전향시키는 데 성공했고 자기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훈은, 그러나 4년 뒤 죽음을 앞둔 서구로부터 최후의 편지를 받는다.

나는 자네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 진리는 우정보다도 중하다는 말이 있다. 그보다 나는 진리 없는 곳에는 어떠한 우정도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네와 나와 사이에는 애초부터 우정이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전에 그 비슷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만 같은 마을의 개는 서로 낮이 익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자네가 나를 수용소 천막에서 찾고 나를 끌어내고 혼인을 시키고 갖은 일로 나를 심리적으로 때려눕혔다고 생각했겠지만, 모두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나와 자네와는 생각하는 차원부터가 다르니까, 그러한 것으로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흡족한 얼굴로 나를 대할 때 나는 자네의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도 싶었다. … 나를 때려눕히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계급 속에 살아남아 계급은 나의 시체를 디디고 전진할 것이다(160면, 강조는 인용자).

「승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이 편지는 혁명가 서구의 인간적 존엄과 ‘사상하는 자’를 둘러싼 선우휘 소설의 모든 문제성을 집약한다. 자기 신체를 훼손당해도 수용소의 교화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고기를 사취도 입에 대지 않는 서구는 어떤 육체적 세속성을 넘어서 인간이 가닿을 수도 있는 초월성을 담지한다. 서구의 ‘패배하지 않는 정신’은 삶의 일상성을 넘어서는 것이며 선우휘식 ‘휴머니즘’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다. 훈이 서구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은, 사상과 신념에 목숨 바칠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일부임을 그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⁵⁾

“냉철한 판단과 조리 있는 논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뜨여진 신념에 찬 얼음같이 맑은 두 눈”(150면)이라 묘사되는 서구는 『깃발 없는 기수』에 스치듯 등장한 박인의 님은꼴이다. 다만 서구에게는 박인에게 가정되었던 성장의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티 없이 맑고 “까딱없는 눈”에 담긴 그 사상과 신념이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될 것이라는 성장의 가정이, 「승패」의 서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더더욱 서구는 타협 없이 박제된 젊음의 형상이다. 동시에 서구는 성숙한 어른의 형상도 하고 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삶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성숙성의 한 면모이며, 이 사실을 외면하고서 되는 어른을 우리가 흔히 속물이라고 부르는 까닭에서다. 훈은 “나도 지고 자네도 졌어, 누구도 이길 수는 없어”(163면)라며 모두가 이 국제적 내전의 패배자임을 선언하지만, 서구의 패배가 모호한 반면 훈의 패배는 분명하다. 훈은 서구와의 경쟁에서 젊음도 성숙함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승패」는 ‘사상하는 인간’이 선우휘에게 얼마나 인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존재였는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구도가 「열세 살 소년」(1964)에서 다시 그려진다. 「열세 살 소년」은 「승패」에 나타난 서구와의 승부를 재연하는데, 여기서는 전향과 순치의 대상이 한갓 어린아이로 바뀌어 있다. 얼핏 상상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서사의 세계를 조작한 것처럼 보이는 이 소설은, 그러나 결말까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국군 유격대원인 ‘나’는 태백산맥의 한

55) 이 존엄성은 흔히 선우휘를 논할 때 ‘행동주의 문학’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거론되는 앙드레 말로가 말한 바로 그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이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떤 사상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인류의 독특한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라는 페랄의 물음에, 지조르는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건디어낸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잇는다. “인간이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모든 사상은 이 조건의 바탕을 막연하나마 인간의 존엄 위에 놓고, 그 올바름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 노동자 계급에게는 코뮌리즘이 그것이다.”(앙드레 말로, 박종학 옮김, 『인간의 조건』, 홍신문화사, 2020, 273면.)

촌락에서 소년 김홍길을 발견한다. 키가 유독 작은 한 사내가 촌민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며 좌익 선동을 하고 있다. 국군 유격대가 다가서서 제지해도 연설을 그치지 않고 되려 “뭐냐, 네놈들은? … 괴뢰냐?”⁵⁶⁾라 일갈하는 그는 무려 열두 살에 불과한 소년이다. 사로잡힌 이 ‘빨갱이 소년’은 식사도 거부하고 모포를 주어도 덮지 않는다. 잘 타일러 봐도 죽일 테면 죽이라고 대거리를 해낸다. 그가 ‘패배하지 않는 정신’을 담지한 ‘서구’의 결손된 복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소년이 강권에 못 이겨 먹은 밥을 토하려 하자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넌, 인식! 어린애야, 응,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구, 잠이 오면 자고 싶어하구, 무서우면 울구, 놀고 싶어하는 어린애란 말야”(313-314면)라 우박 지르며 마구 뺨을 때린다. ‘나’는 「승패」의 훈이 자기가 사준 고기를 전혀 먹으려 들지 않는 서구 앞에서 감히 내뱉지 못하고 삼켰던 말“어째 모든 일에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드는 거야. 고기가 있으면 잔말 말고 맛있게 먹어!”(158면)-을 이 불완전한 복제 앞에서는 물리적 폭력과 함께 마음껏 내지른다. ‘나’가 주체하지 못하고 소년에게 폭력을 쏟아붓는 것은 그가 언케니(uncanny)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승패」의 서구가 그러했듯이 춥고 배고픈 인간의 일차적 욕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그걸 초극할 수라도 있는 양 군다. ‘나’가 휘두르는 폭력 끝에 결국 소년은 울음을 터뜨린다.

“어린애 어디까지나 어린애다와야지. 넌 너무 빨리 어른이 되었어. 그게 난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 아까 나는 널 때린 게 아니구 네 속에 있는 알미운 작은 어른을 친 셈이야. 네가 아닌 말이다.”(315면)

소년을 정신적으로 제압하기 시작한 ‘나’는 점차 그에게 유아적 퇴행을

56) 선우휘, 「열세 살 소년」, 『선우휘 소설선집1』, 308면.

요구해 나간다. ‘나’는 동화와 옛날이야기, 어린이 그림책 따위를 고집스럽게 읽히면서 홍길이의 ‘사상’을 순치시켜 ‘어린애답게’ 만들려 한다. “홍길이는 좀더 까다로운 책을 볼 수 있는 독서력을 갖고 있었으나 나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사주지 않았다.”(320면) 마치 『귀환』에 실린 수기 「책은 한 권만이 아니다」의 소년 백관식이 용초도 수용소에서 겪어야 했던 바로 그러한 퇴행의 과정이다. “북반부에서 어떤 세뇌를 받았는지 … 좀처럼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317면)던 홍길이었지만, 점차 변화를 보여간다. 어느새 ‘나’와 홍길이는 부자기간에 가까울 만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승패」의 서구를 상대로는 성공할 수 없었던 순치와 전향이, ‘빨갱이 소년’ 홍길을 대상으로는 성공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우회가 이러한 ‘나’의 자기만족적 승리 속에서 작품을 끝마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작품의 말미에서 ‘나’와 홍길은 적의 급습을 만나 고립된다. ‘나’는 홍길만이라도 살아남도록 원래 그가 속해 있던 인민군 편에 투항할 것을 종용한다. 그러나 홍길은 되려 적의 주의를 끌어 스스로를 희생해 ‘나’를 살린다. 홍길의 희생에 충격을 받아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나’는 적이 떠나간 자리에서 감히 홍길의 숨진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선언한 것은 전쟁에 어린아이가 희생되었다는 데 대한 휴머니즘적 연민보다도 홍길에 대한 ‘나’의 어떤 외경심이다. 홍길은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외경심 섞인 언케니의 대상으로 남으며, 이 지점에서 홍길을 순치하려던 그의 시도는 중국적으로 실패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만이 아니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한갓 사사로운 존재가 되라는 것이야말로 홍길에 대한 ‘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홍길은 ‘나’를 비롯한 선우회 소설의 주체가 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행위, 즉 제 한 목숨 넘어서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다. 홍길의 행위에는 의사(疑似) 부자 관계와 나이의 위계라는 세속성을 뒤집는 초월성이 있으며 이 지점에서 홍길은 비로소 서구(「승패」)의 진정한 닻은뜰이 된다. 선우회는 공산주의에 소년/아들의 자리를 할

당해가며 확인하려 했던 어른/아버지의 지위를 끝내 얻어내지 못한다. '빨갱이 소년' 길들이기는 이렇게 다시금 실패를 맞는다.

5. 교양소설의 완성: 「좌절의 복사」와 『물결은 메콩강까지』 사이에서

나이 마흔을 넘긴 선우휘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었을까? 「승패」에서 서구를 전향시킬 수 없었던 그 패배를, 분단의 경험 아래 누구도 승리시킬 수 없다는 자각을 떠안고 다른 미래를 상상할 가능성 말이다. '소년-빨치산-미숙성-공산주의'라는 계열화된 표상에 스스로 가뒤편된 젊음을, 새로운 저항의 자원으로 전화시킴으로써 4월 혁명 이후의 새로운 흐름에 합류하는 길은 없었던 것일까. 정치적 진보와 경제적 발전을 향한 내셔널한 열망, 그리고 이와 얽힌 '근대경험'의 감각 속에서 바야흐로 '역사적 장르로서의 교양소설'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던 때였다.⁵⁷⁾ 확고한 반공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곧 인간적 성숙으로 서사화하려다 뼈거덕 거리고 마는 교양=냉전의 유착된 논리를 해체하고, 완전히 다른 논리 구성으로 자기 글쓰기를 갱신할 성찰의 계기가 선우휘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좌절의 복사」(1965)는 1964년의 봄과 여름을 달군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배경으로, 이 사건에 '젊음'의 표상을 통해 연결되는 두 개의 역사적 기억을 포개놓고 있다. 신문사 편집국장 R은 서울에 계엄령이 내리자 몸을 숨긴 사회부의 젊은 기자 Y를 계속 은신시킨다. 그가 주요인물 리스트에 올라 있는 데다 모종의 결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⁸⁾ 그럼에도 Y기자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했기에 R은 정보기관

57) 1960년대에 다시 등장한 역사적 장르로서의 한국 교양소설에 관해서는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 혁명과 쿠데타 이후 문학과 젊음』 참조.

관계자에게 선처를 약속받고 Y기자를 넘겨주게 된다. 그런데 막상 Y를 보내자 정보기관은 그를 잡아두고 좀처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정보기관을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짓고 Y를 빼내 온 R은 Y가 꽤나 연짙은 기색인 데 놀란다. 정보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되려 Y는 “자꾸 자기도 입건해 달라”고 조르는 지경이었다는 것이다.⁵⁹⁾ 그는 ‘국가 변란의 사건’으로 입건될 다른 동료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고, 편집국장 R의 도움으로 자기만 구출된 것이 싫었던 것이다. R는 자기에게 의례적으로 감사는 해야겠는데 괴로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Y를 보면서 ‘젊음’의 표상을 둘러싼 두 개의 기억을 떠올린다.

한 가지는 1940년 여름, 19살이던 R이 고향 선배 D, 소학교 은사 H와 더불어 사상관계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았던 일이다. “공산주의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던 R과 달리 D와 H는 “공산주의 동조자” 혐의를 받고 있던 터였다(29면). 처음 겪은 고문에 굴복할 뻔한 R은, D와 H가 의연하게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며 어떤 외경심을 느낀다. 흥분하고 초조해하는 일본인 형사보다 되려 묵묵히 고통을 견디는 D와 H가 더 거룩해 보였던 이 뒤집힌 구도는 “R의 마음속에 차원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 또한 저항의 결의를 다진다(30면). 하지만 이 결의는 곧장 무의미해지고 마는데, 당시 중추원 참의였던 고모부가 R을 구제해주러 온 것이다. “젊은 객기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 친척들의 체면도 생각”(31면)하라는 충고와 함께 홀로 구제된 R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괴감에 절망한다. 그러니까 편집국장 R이 젊은 기자 Y에게서 본 것은 바로 그때 자기의 모습이었다.

58) 여기서 ‘대학 시절 정치적 연구 클럽’에도 가입해 있다고 하는 Y기자는 남재희의 주장에 따르면 후일 14·15대 국회의원까지 지내게 되는 박범진이라고 한다. 그는 서울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멤버로 조선일보사 수습기자 시절 도피생활을 했는데 당시 편집국장 선우휘가 중앙정보부에 부탁하는 등의 노력으로 조사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한다(남재희, 『남재희가 만난 통큰 사람들』, 리더스하우스, 2014, 129면).

59) 선우휘, 「좌절의 복사」, 『선우휘 문학선집2』, 조선일보사, 1987, 28면.

다른 하나는 R이 한국전쟁 당시 목격한 한 빨치산 포로에 관한 일화이다. 지리산 전투사령부의 장교로 근무하던 그는 한 빨치산 포로의 눈에서 “들린 듯한 너무나 절박한 빛”을 발견한다(35면). 그는 빨치산 동료들을 사살하지 않고 생포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국군의 빨치산 토벌에 협력한 터였다. 그런데 실제 작전에서 빨치산은 전원 사살된다. 자기가 동료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한 그 젊은 빨치산을 위로 하겠다고 부대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표창장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었고 끝내 그 빨치산은 며칠 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R은 “같은 이십대의 젊은이로서 그가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을 듯했다. … 그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 않았던”(38면) 자기를 떠올린다.

「좌절의 복사」에 등장하는 공산주의자 D와 H, 젊은 빨치산 포로는 모두 「승패」의 서구와 특질을 공유하는 존재들이다. 「승패」에서와 달리 「좌절의 복사」의 R은 이 존재들에게 감응하고 공감하며 마음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다만 그런 순간들은 잊혔으며 그 망각과 더불어 R은 어른이 되었다. R은 그렇게 젊음을 상실하는 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가지만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젊음의 핵(核)’이 상처를 결정적으로 입는다는 일이다. 젊음의 핵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가뭇서 부서지는 것도 때려서 부서지는 것도 죽여서 부서지는 것도 아닌 강하고 귀한 것이면서, 오히려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인간적 온정 따위로서는 쉽사리 부숴버릴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할까.

그것이 부서질 때 긴장한 녹음의 체구도 시들어 아무리 절묘한 멜로디를 들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관영을 보아도 즐거울 수도 없고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그것이 부서지면, 죽도록 사랑하는 이성의 몸뚱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뒹굴어도 마음의 한구석 어딘가는 언제나 전혀 끊어오르지 않고 얼

음같이 차가운 그런 성질의 것이다. 그것이 부서지는 소리는 삶의 좌절하는 비명에 가까운 음향이다.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적어도 젊음은 죽어버리는 것이다. 아니 젊음과 동시에 삶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34면, 강조는 인용자).

R은 “해방 후 이제까지 역사의 세찬 수레바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음의 핵들이 이 땅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부서져 갔던가를 생각한다(39면). 것처럼 젊음의 핵을 잃고도 그저 오래도록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의해 본다. 그리고 젊은 기자 Y만이라도 젊음의 핵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에게 편지를 쓴다. “난 앞으로 자네의 동정에 대한 보증을 섰어. 그렇지만 조금도 거기에 구애되지는 말게. … 자네는 무엇이든지 자네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져도 좋다는 말일세.”(39면) 비단 Y기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못 젊은이들에게 부치는 이 선우휘의 편지는, 자신들이 다하지 못했던 ‘광장의 정치’의 가능성을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선우휘 소설로서는 희유한 세대적 연대의 순간으로서 기억될 만하다.

“젊음의 핵”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깨지는 순간은 R뿐만 아니라 작가 선우휘에게도 있었다. 해방기 『조선일보』의 어리숙한 기자였던 선우휘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용산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취재하게 된다. 파업 현장은 이내 경찰력에 의해 간단히 제압된다. “머칠 전에 나한테 보였던 혁명적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수 그리고 때때로 눈을 들어 형편을 살피는 그들”을 보며 선우휘는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을 연상”한다.⁶⁰⁾ 안쓰럽게 굴복당한 노동자 앞에 선 것은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었다. 가죽 장화를 신고 말채찍을 든 그는 거의 별세계에 사는 인간이기라도 한 듯, 줄 세운 노동자들을 하나씩 심문한다. 장택상의 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다. 그 모습을 본

60) 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②—비에와 낙망의 초기 기자 시절」, 473면.

청년 선우휘의 내면에는 “안타까움”을 넘어 “일종의 비애”가 번진다. 짐승에 가까운 몰골의 노동자와 다이아 반지가 빛어내는 “잔인한 대조”에 마주하여, 그는 “내가 만약 좌익 기자였다면” 의분을 느꼈으리라는 가정으로 자기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다.⁶¹⁾ 여기서 자기 의분을 억눌렀던 그 순간이야말로 청년 선우휘 안에서 ‘젊음의 핵’이 깨진 순간이 아닐까? 더럽고 비열해도 이복에서 내가 목도한 그 공산주의의 폭력과 혼란에 비하면 이런 것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꼈을 그 순간에 말이다. 이 일화는 그의 젊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 분단체제에 대한 괴로운 수락 속에서 종결되었음을 암시한다.

냉전/분단과 더불어 끝나버린 자기 젊음에 대한 자각과 고민은 「좌절의 복사」에서 절정에 달했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65년 전후는 『조선일보』 필화사건 등 신변의 위기로 육박해 오는 박정희 독재체제 앞에 긴박하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던 때다.⁶²⁾ 선우휘는 자신의 냉전적 교양 이념에 대한 발본적 성찰 대신, 지금껏 실험해 온 교양소설을 보다 온전한 형태로 완성함으로써 이 위기를 봉합한다. 『물결은 메콩강까지』(1966~1967)가 바로 그것이었다. 베트남전쟁 파병을 정당화하는 이 연재소설의 모순과 한계는 선행연구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길게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⁶³⁾ 다만 여기서 짚어두고 싶은 것은 이 소설이 「불꽃」과 『깃발 없는 기수』와 같은 실험작들보다 훨씬 매끈하게 완성도를 갖춘 교양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1) 위의 글, 474면.

62) 『조선일보』 필화사건은 1964년 11월 21일에 게재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문제 삼아 이루어졌으며 이때 선우휘는 리영희와 함께 연행되고 신문은 압수된다. 이는 1964년 7월에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언론인들의 반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가까웠다. 이 시기 선우휘의 신변을 둘러싼 사건들에 관해서는 김종욱의 글(「베트남전쟁과 선우휘의 변모」, 『우리말글』 63, 우리말글학회, 2014, 358-366면)을 참조.

63) 김종욱, 위의 글; 장세진, 「학병, 전쟁 연쇄 그리고 파병의 논리—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강까지』(1966)를 중심으로」, 『사이』 2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물결은 메콩강까지』의 주인공 남기욱은 이복에 처자식을 두고 월남한 인물로 작품의 배경인 1966년 현재 한국식 셈법으로 44살, 1923년생이다. 그런데 화가인 그는 조금도 중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 젊은 애인과의 플라토닉한 관계, 모던한 바에서의 술 한 잔, 낯선 여인과의 정사, 집은 있지만 진정한 정주(定住)는 아닌 처지, 미적인 것에 대한 추구, “사이공에 가서서 그곳 아가씨들 보고 그렇게 웃지는 마세요”⁶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해사한 외모까지, 이 모든 설정은 하나같이 남기욱이 ‘청년’임을 가리킨다. 그가 두 번이나 전쟁터에 나간(학병, 한국전쟁) 44살 아저씨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의 젊음을 보여주는 것은 흔들리는 판단과 굳지 못한 인생관일 것이다. 작품 속 남기욱의 독백에서 시종일관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역접 어구는 베트남전쟁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태로운 논리 구성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의 망설임과 떨림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찬 젊음의 증거이기도 하다.

작품 초반부에서 남기욱은 나른하고 퇴폐적인 생활에 지쳐 있으며 자기 젊음의 상실을 느낀다. 그의 학병세대 친구들은 재일본 한국대사, 의사, 변호사, 경제학 교수, 신문논설위원 등 그야말로 남한사회 요직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젊음’이다. “조로의 징조를 발견하면 그 책임을 전쟁에 돌리기 일쑤였다. 과연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의 청춘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37면) 분단과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젊음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했다는 의식은 앞서 한 차례 지적했듯 선우회의 진솔한 자기 감각이기도 했다.

이러한 ‘젊음의 콤플렉스’는, 엉뚱하게도 또 다른 전쟁을 통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남기욱은 플라토닉한 애인 이은경의 동생 이세경이 ROTC로 베트남 전장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64) 선우회, 『물결은 메콩강까지』, 창우문화사, 1983, 134면.

베트남에 자기 젊음을 되찾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는다. “키르케고르의 대지진”(68면)과 같은 내적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며 결코 젊음을 양보하지 말라는 친구 조일연의 조언은 남기욱의 중군을 더욱 충동질한다.

도쿄를 경유해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남기욱의 여정은 젊음을 되찾는 여정인 동시에 최종적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다. 작품은 재일본 한국대사 조일연의 입을 빌어, 남기욱이 이 여정에서 성취해야 할 지적인 성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해 준다. 즉 한국인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사유하는 한, 프랑스나 일본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판에 박힌 반전주의 따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병을 이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의미화하고, 배고픈 자의 전쟁을 배부른 자의 평화주의와 대립시키는 이 작품은, 남기욱에게 “겉멋” 든 평화주의를 넘어 “철”이 들 것을 요구한다(76면). 실제로 이 여정 속에서 남기욱은 “전쟁에 휩쓸려 죽어가는 월남인들이 가엾다”거나 “명분이야 어떻든 한국인이 월남인을 죽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등의 ‘어리숙한 생각’(249면)을 넘어 인식적 ‘성장’을 경험한다. 그것은 베트남에서의 중군 체험뿐만 아니라, 작가가 반전주의의 근본적 배후라고 상정하는 사르트르에 대한 지적인 극복을 통해서다.

사르트르는 탁월하다. 그렇다고 불란서 지식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식인도 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것처럼 행동하여야 하는가 어떤가? ... 사르트르가 의미하는 것은 성실이 아닐까. 그가 설혹 발언과 행동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그가 그 나름에서 성실하다는 것이 아닐까. 그로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일관해서 성실하다는 것. ...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 더운 월남 퀴논의 천막 속에서 멀리서 우레처럼 울려오는 뾰소리를 들으며 사르트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 헤어지자.....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이제는!(196-197면)

남기욱은 사르트르의 뜻에 따라 자기가 자기 현실에 '성실성' 있게 임한다면 사르트르와 다른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그가 그려내는 베트남의 한국군은, 그야말로 '과병'이라는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안고 자기 것으로 삼은 실존적 주체의 형상이다. 실존주의의 전유 혹은 일종의 '현실수리론'이라고도 부를 이 태도는 이 작품에서 어떤 지적인 독립성의 성취로 의미화된다. 지적 독립성의 성취는 매우 뚜렷한 성장의 표현이다.

작품의 말미에서 남기욱은 최종적인 입사 의례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에 오기 전 하룻밤을 함께 한 혜순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하여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 혹은 젊음의 방황을 지속할 것인가를 두고 마지막 고민의 시간이 주어진다. 결국 그는 예정되어 있던 귀환 즉 아버지 되기를 미루고, 전사한 이세경 소위(은경의 동생)의 뒤를 쫓아 베트남의 전장에 남기로 결심한다. 최종적 입사의 거부라는 이 변형된 결말이 사실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남기욱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정신적 성장의 몫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결말은 작품의 형식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물결은 메콩강까지』는 장편의 규격과 형식을 갖춘 한 편의 교양소설로서 완성된다.

이 작품이 연재된 시기(1966.6.9.~1967.2.28.)는 4월 혁명부터 한일협정 반대운동까지 비등한 젊음을 '불온성'의 표지로서 재발견하고, 젊음을 '관리'하는 각종 문화정치의 기예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창출되던 시기였다. 5·16 직후에 젊고 새로움을 자기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었던 쿠데타 세력은 1965년 중반경에 이르러 '말 안 듣는 철부지 자식(학생)을 훈계하는 근엄한 아버'의 형상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었다.⁶⁵⁾

65)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4, 88-90면. 임유경은 이 글에서 1960년대에 '불온성'과 '불온한 주체'들이 창출된 과정을 당시의 필화사건을

마치 박정희와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버지처럼, 선우휘는 다시 한번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성전'에 몸 던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개인사적 성장으로서 서사화하였다. 「불꽃」의 1967년 버전이었다. 「불꽃」은 시대의 환영을 받았지만 『물결은 메콩강까지』를 진지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시대가 변했지만 선우휘는 그대로였다. 그는 자기가 겪은 해방기 체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양 논리의 바깥에서 또 다른 젊음과 성장의 드라마를 상상할 수 없었다. 10여 년에 걸친, '젊음'을 둘러싼 그의 진정성 어린 작가적 실험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6. 결어: 분단/냉전 속에 스러져 간 젊음의 초상

이 글은 선우휘가 공보장교 시절 집필한 『귀환』에 실린 두 편의 나이 어린 국군포로의 전향=성장 이야기에 착안하여, 그의 주요 작품들을 교양소설의 관점에서 독해하였다. '젊음'이 '문제적인 젊음'일 수 없었고 적절한 문학적 표현의 의장도 얻지 못했던 1950년대에, 세상과 불화하는 젊은이의 성장과 방황을 자기 최대의 화두로 삼은 선우휘는 다분히 예외적인 전후 작가였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장르인 교양소설로서의 '정상성'을 갖고 나타날 수 없었다. 「불꽃」은 주인공 현이 편력과 방황 끝에 다다른 자발적인 각성의 순간을, 대한민국의 규범적인 남성 반공 주체가 되는 순간과 겹쳐 놓았다. 교양의 논리와 냉전의 논리가 유착된 '반공의 교양의 전후적 양

중심으로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 하나가 '젊음=불온'이라는 남한의 냉전적 이미지이다. 그런데 필자가 가설적으로 접안하고 싶은 것은 '젊음'에 부여된 불온성의 이미지가 1960년대에 '비로소' 창출되고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되려 젊음(의 불온성)을 제압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가의 기원적 시간부터 관철된 문화정치의 중요한 일부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이것은 별도의 지면을 필요로 하는 논의인데,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사상하기’의 어리석음과 덧없음을 깨닫고 어른이 되라는 「불꽃」의 교양 논리는 『깃발 없는 기수』에서 더 극적으로 변주됐다. 해방기 서울의 좌파적 세대에 저항하는 청년 허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항 논리로 그저 여체를 탐하고 일차적 욕구에 충실한 인간상을 전면화하였지만, 그런 일차적 욕구를 넘어 ‘사상’하는 인간 형상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만다. 윤이 행동으로 최종적 입사 의례를 치를 때, ‘젊음’은 공산주의 그것의 이미지로 남는다.

공산주의를 극복해 어른이 되는 두 작품의 비교적 매끄러운 전개와 달리, 「승패」, 「열세 살 소년」과 같은 작품은 ‘사상하는 인간’에 대한 선우휘의 인식적 처리나 극복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준다. ‘사사로운 나’를 넘어 신념에 목숨 바칠 수도 있는 인간은 젊음의 상징성과 성숙한 인간의 존엄성 모두를 간직했기에, 공산주의자는 외경심 섞인 언케니의 대상이었고 선우휘는 그로부터 청년과 어른 그 어느 쪽의 형상도 전유해내지 못했다.

‘젊음’의 표상을 매개로 자기 젊은 시절과 4·19 이후의 청년들, 그리고 한국전쟁기에 만난 빨치산의 존재를 연결시킨 「좌절의 복사」는, 이처럼 빠져덕거리던 교양=냉전 논리의 균열에 대한 자기성찰의 한 극점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균열은 『물결은 메콩강까지』라는 형식적으로만 완결된 교양소설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합된다. 생물학적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의 특질을 구현한 남기욱은 이 소설의 교양 주인공이었으며 그는 젊음을 되찾고 또 최종적인 성숙으로 향하는 베트남 중군의 여정에 오른다. 선우휘의 교양소설 실험은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채로 끝나고 만다.

이 글이 선우휘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은,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폭력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젊음을 떠나보낸 작가들이, “깨져버린” 자신의 “젊음의 핵”(「좌절의 복사」)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가였다. 분단과 전쟁, 냉전의 경험이 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들로부터 “재미있는 버릇”을 빼앗고 “찍격지”만 남게 했는가.⁶⁶⁾ 1948년 체제의 성립과 대규모 전향을 겪은 기성 작가 대부분이 전후에 문제적인 작가로서 재기하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터였다. 또 ‘사상’하지 못하게 된 시대에, 바로 그 사상하는 자(혁명가·빨치산)의 형상은 인식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가. 물론 이것은 단정수립 이후의 사상전·심리전과 무관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더 복잡하다. 요컨대 이런 문제의식을 아울러 가며 ‘신생 대한민국의 정신분석’ 같은 것을 수행해보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 글의 역량과 범위를 한참 초과하는 문제이며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적어도 선우휘가 이런 물음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의 소설은 전후 ‘사상전’의 난국 속에서 냉전과 강하게 결합된 형태의 교양 이념이 출현하였음을 알려준다. ‘반공의 교양’은 실패한 교양의 서사였지만, 그것은 그가 냉전의 문제성을 진지하게 받아 안고 실패지점까지 ‘재현’을 계속했던 충실성의 결과다. ‘장택상의 다이아 반지’ 앞에서 의분을 억누르며 결정적으로 젊음을 상실했을 그가 그토록 ‘젊음’이라는 화두에 매달린 것은, 자기의 끝난 젊음에 애도하고 깨끗이 돌아설 수 없었던 멜랑콜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어른으로 만든 분단/냉전의 경험을 어떻게든 자발적 선택과 개인사적 성장으로 의미화하려 했다.

선우휘의 교양소설 실험은 끝났지만, 진보·발전의 시대정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이상한 교양 이념은 금방 막을 내리지 않았다. 변혁운동의 물결이 일던 1980년대, 악명 높았다던 『조선일보』의 선우휘 칼럼에서

66) 최정희 장편소설 『인간사』(1964)의 말미에서 젊은 시절 ‘주의자’로 활동하다 전향, 말년에는 농촌의 평범한 아낙이 된 마체희라는 인물의 대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세상을 살아오느라니까 재미있는 버릇들은 다 흘러 버리고 싱겁디 싱거운 찍격지만 남더군요. 그 싱거운 찍격지가 잔뜩 담긴 인간을 일러서 어른이라고 하더군요.”(최정희, 『인간사』, 『신한국문학전집 24: 최정희 선집』, 어문각, 1981, 153면)

그는 여전히 대학생들의 ‘좌경화’에 맞서 ‘어른’ 되기를 촉구하였다. “선불리 자기 나름의 쉬운 결론을 얻어 그것을 신념화시켜 행동에 옮기는 것만큼 경솔하고 위험한 일은 없”다고 가르치는 선우회의 풍모는 완전한 교양주의자다.⁶⁷⁾ “인간을 위한 가장 긴급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 각종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 자유롭게 되는 일”⁶⁸⁾이라는 그의 논리는 이제 매끈하게 완결된 형태를 취한다. 그가 교양소설을 ‘실험’하던 시대의 균열들, 그러니까 교양=냉전의 교착된 논리를 관철하려 하면서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협화음까지 기꺼이 떠안고 고민하던 시대의 균열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1980년대 칼럼에서 좌익 이데올로기는 ‘전염병’이었는데, 그것은 전염병 일반이 아니라 홍역이나 수두, 백일해처럼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한 번은 겪어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전염병이었다.⁶⁹⁾ 하지만 “20전에 사회주의자가 안 되면 하트가 없는 증거요, 20이 넘어서도 아직 사회주의자라면 그것은 헤드가 없는 증거”⁷⁰⁾라는 것은 선우회 개인의 발상이 아니었다. 되려 이 출처 모를 속담(?)의 당대적 유행은, 남한에서 ‘붉은’ 존재란 어른스러운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음을 익살스럽게 암시한다. 젊음이 언젠가 반드시 끝나듯 좌파적 저항도 언젠가 끝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원적 시간부터 내려져 온 내러티브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1990년대에 이른바 ‘후일담 소설’이 80년대의 저항을 젊고 어렸던 시절의 한 페이지로 채색한 것도, 넓게 본다면 ‘반공의 교양의 서사적 코드 안에 있는 것이다. 물론 변혁의 불온성과 젊음 사이의 이 유착된 표상은 어느 시점에선가 분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경위를 찾아

67) 선우회, 「누구를 위한 사상이냐」, 『아버지의 눈물』, 동서문화사, 1987, 150면.

68) 선우회, 앞의 글, 153면.

69) 이를테면 선우회, 「학생들에게 할 말 없다」(위의 책);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같은 책) 등의 글을 참조. 선우회는 여기서 ‘최근의 좌경 학생들’을 타이르고 설득할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70) 선우회, 「학생들에게 할 말 없다」, 156면.

보는 것 역시 오늘날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봉구, 『불문학산고』, 신태양사출판국, 1958.
- 문익환, 「나와 한국문학」, 『사상계』 61, 사상계사, 1958.8.
- 박영준, 「십사평」, 『사상계』 50, 사상계사, 1957.9.
- 박태순, 「젊은이는 무엇인가」, 『아세아』 2, 아세아사, 1969.3.
- 백낙준 외 6인, 「좌담회: 사상운동의 회고와 전망」, 『사상』 2, 사상사, 1952.10.
- 선우휘, 『귀환』, 청구출판사, 1953.
- 선우휘, 「수상소감」, 『사상계』 50, 1957.9.
- 선우휘, 「나의 처녀작을 말한다: 용초도에서 쓴 「귀환」」, 『세대』 26, 세대사, 1965.9.
- 선우휘, 「문학은 써먹는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1967.10.19.
- 선우휘, 「현실과 지식인」, 『아세아』 창간호, 아세아사, 1969.2.
- 선우휘, 『물결은 매콩강까지』, 창우문화사, 1983.
- 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①」, 『월간조선』 7-4, 조선일보사, 1986.4.
- 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②」, 『월간조선』 7-5, 조선일보사, 1986.5.
- 선우휘, 『선우휘 문학선집 1-3』, 조선일보사, 1987.
- 선우휘, 『아버지의 눈물』, 동서문화사, 1987.
- 선우휘·정규용, 「나의 문학, 나의 소설작법」(대담), 『현대문학』 29-9, 현대문학사, 1983.9.
- 손창섭, 「혈서」(1955), 『한국소설문학대계30: 잉여인간 외』, 동아출판사, 1995.
- 신상초, 「레지스탕스」, 『사상계』 46, 사상계사, 1957.5.
- 양재모, 「대중의 저항」, 『사상계』 71, 사상계사, 1959.6.
- 윤천주, 「정치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 『법정』 15-2, 법정사, 1960.
- 이교승, 「창간사」, 『사상』 창간호, 사상사, 1952.9.
- 이어령, 「1957년의 작가들」, 『사상계』 54, 사상계사, 1958.1.
- 장준하, 「권두언: 새 세대를 아끼자」, 『사상계』 33, 사상계사 1956.4.
- 조윤석, 「「불꽃」은 위대하다」, 『사상계』 51, 사상계사, 1957.10.
- 최정희, 『신한국문학선집24: 최정희 선집』, 어문각, 1981.
- 해럴드 라스웰, 이극찬 옮김, 『정치동태의 분석』, 사상계사출판부, 1960.

2. 단행본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 남재희, 『남재희가 만난 통큰 사람들』, 리더스하우스, 2014.
-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 혁명과 쿠데타 이후 문학과 젊음』, b, 2018.
- 한수영, 『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 허병식, 『교양의 시대: 한국근대소설과 교양의 형성』, 역락, 2016.
- 池田浩士, 『教養小説の崩壊』, 現代書館, 1979.
- 후지타나 다카시, 이경훈 옮김,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소명출판, 2019.
- 앙드레 말로, 박종학 옮김, 『인간의 조건』, 흥신문화사, 2020.
- David C. Engerman, Know Your Ene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문학동네, 2005.
- 후버트 오를로우스키, 이덕형 옮김, 『독일 교양소설과 허위의식』, 형설출판사, 1996
- Jed Esty, *Unseasonable Youth: Modernism, Colonialism, and the Fiction of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매슈 아놀드, 윤지관 옮김,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3. 논문

- 김일환·정준영, 「한국전쟁의 '현장'은 어떻게 냉전 사회과학의 지식으로 전환되는가?」, 백원담 외, 『냉전아시아의 사상심리전』, 진인진, 2017.
- 김종욱, 「베트남전쟁과 선우휘의 변모」, 『우리말글』 63, 우리말글학회, 2014, 353-378면.
- 박현호, 「'계급' 개념의 근대 지식적 역학」,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2008, 13-39면.
- 반재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257-306면.
- 서세림, 「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 『현대소설연구』 67, 현대소설학회, 2017, 389-420면.
- 오제연, 「1960~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 이명원, 「소민주의(小民主義)의 에토스」, 『한민족문화연구』 78, 한민족문화학회, 2022, 195-228면.
-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4.
- 장세진, 「학병, 전쟁 연쇄 그리고 파병의 논리」, 『사이』 2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55-193면.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
현대문학회, 2012, 247-281면.

후지이 다케시,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2008, 117-151면.

<Abstract>

The Experiment on Bildungsroman of Seon-Woo Hwi, 1953~1967

—The Representation of Youth in the Postwar Korea
and Its Limitations

Bahn, Jae Young

The question on the way that the intellectuals of South Korea narrated their lost youth which had ended violently/voluntarily through the National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s a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This article tried to re-read the postwar writer Seon-Woo Hwi whose biggest topic was ‘youth’ in the perspective of Bildungsroman.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d his bildung-ideology that stubbornly combined with the logic of The Cold War. “Spark”(「불꽃」) and *A Flagless Flag Bearer*(「깃발 없는 기수」) represented a young man’s growth, wandering, and existential decisions as a process of becoming a normative male-anti-communist of South Korea. However, in the postwar time, this type of ‘growth’ could only mean an acceptance of the established values. This made Seon-Woo Hwi struggle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his youth.

“Victory and Defeat”(「승패」) “A 13-year-old Boy”(「열세 살 소년」) and “Copies of Frustration”(「좌절의 복사」) were different from Spark” and *A Flagless Flag Bearer* mocking and rejecting communists. These texts revealed that communists were not an easy target for the writer to epistemological overcome. Because the communist, who could devote their lives to the belief to transcend the private ego was an Uncanny

object with awe for Seon-Woo, he failed to appropriate both the symbolism of youth and the dignity of mature man against them. It was in *The Waves Flow to the Mekong River*(『물결은 메콩강까지』) that the crack of ‘Bildung=Cold War’ logic was finally sealed. Seon-woo’s experiments on bildungsroman over the 10 years had ended in this Vietnam War-justifying-novel. But the ideology of ‘Cold War-Bildung’ that supported his bildungsroman remains an unresolved task for us.

Key words: *The Return*(『귀환』), “Spark”(『불꽃』), *Flagless Flag Bearer*(『깃발 없는 기수』), Bildungsroman of Anti-communism, War of Thought, Ideological conversion, Partisan, Prison camp

투 고 일 : 2022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2년 9월 22일